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대학부설연구소 발행 학술논문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오픈액세스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를 중심으로—



2015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전공

손 천 익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경희

대학부설연구소 발행 학술논문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오픈액세스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xpansion of the open access to Articles
published by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s: Focused on the
journals listed (candidate)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5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 전공

손 천 익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경희

대학부설연구소 발행 학술논문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오픈액세스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xpansion of the open access to Articles
published by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s: Focused on the
journals listed (candidate)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위 논문을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 전공

손 천 익

손천익의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 문 초 록

대학부설연구소 발행 학술논문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오픈엑세스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전공

손 천 익

연구자와 학술지 발행기관은 출판된 학술지에 수록되어 있는 논문이 더 많이 노출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인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인용확대를 목적으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한 원문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중인 원문서비스 방법이 수록 논문의 인용확대에 부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부설연구소 등재(후보)학술지(이하 연구소 등재지)의 원문서비스 실태와 저작권 귀속 현황을 조사하여 연구소 등재지의 오픈엑세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인용정보색인(KCI)에 등재되어 있는 연구소 등재지 296종을 조사대상으로 연구소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원문서비스 현황과 저작권 귀속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연구소 등재지 발간에 관여하고 있는 편집자에게 각 학술지의 출판과 원문서비스 방법, 저작권 인식 등에 관한 내용을 설문조사하였다. 설문회수율은 31.1%(92명)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서비스와

상용DB를 통한 원문서비스, KCI와 비영리기관을 통한 원문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였다. 둘째, 저작권 관련 규정과 저작권 소유 주체에 대해 조사하였다. 셋째, 설문조사는 연구소 등재지 편집자를 대상으로 연구소 운영과 학술지 발간, 원문서비스 방법과 선택이유, 저작권과 오픈엑세스 인식에 관한 부분을 조사하였다. 설문회수율은 31.1%(92명)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소 등재지의 원문서비스 선택 기준은 수록논문의 노출과 인용확대,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홈페이지, 상용DB, 비영리기관을 통한 원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다. 둘째, 저작권은 저자와 연구소가 공동으로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논문의 원문서비스와 관리를 위해 연구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셋째, 연구소 등재지는 학술지 출판시 대학의 지원으로 인해 학회와 기타 학술기관에 비해 오픈엑세스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었다. 넷째, 원문서비스 선택기준, 오픈엑세스와 관련한 지식정도와 선호도, 저작권 소유와 선호도에서 학문분야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소 등재지의 수록 논문의 이용과 인용확대,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를 위한 원문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KCI를 통한 원문서비스, 셀프 아카이빙의 활성화, 상용DB의 무료 원문서비스를 통한 원문서비스 채널 확대와 채널 선택의 유연성을 구현하여 수록논문의 노출과 인용확대를 추구한다. 둘째, 저작권 관리는 각 연구소의 재정 환경과 대학 지원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 소유 주체를 정하고, 저자와 이용자를 위해 저작권 규정을 정비하고 저작권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셋째,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소 등재지 편집자와 연구자에게 오픈엑세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홍보하도록 한다.

【주요어】 대학부설연구소, 원문서비스, 저작권, 오픈엑세스, 학술지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1.3 선행연구	3
II. 이론적 배경	8
2.1 대학부설연구소 학술지의 특성	8
2.1.1 국내 학술지의 출판 및 유통상의 특징	8
2.1.2 학문분야별 특성	11
2.2 오픈액세스의 조건 및 효과	13
2.2.1 오픈액세스의 특징 및 조건	13
2.2.2 오픈액세스의 효과	18
III. 대학부설연구소 등재지의 원문서비스 및 저작권 귀속 현황	23
3.1 조사방법 및 내용	23
3.2 연구소 등재지 원문서비스 현황	25
3.2.1 원문서비스 채널별 현황	25
3.2.2 원문서비스의 분야별 차이	29
3.2.3 원문의 중복 서비스	31
3.3 연구소 등재지의 저작권 귀속 현황	34

3.3.1 저작권 귀속 안내	34
3.3.2 저작권 소유 주체	37
3.4 OAS를 참조한 연구소 등재지의 개방 수준	39
3.5 원문서비스 현황 조사결과 요약	41

IV. 대학부설연구소 등재지 원문서비스 방법 및 저작권 처리에 대한 편집자의 인식 44

4.1 조사방법 및 내용	44
4.2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46
4.3 연구소 등재지 발간 현황	48
4.3.1 학술지 발행 관련 비용	48
4.3.2 논문처리비용	51
4.4 등재지의 원문서비스 방법	54
4.4.1 방법과 기준	54
4.4.2 원문서비스 방법에 따른 선택이유와 불편사항	56
4.5 오픈엑세스에 대한 인식	61
4.5.1 오픈엑세스에 대한 인지정도와 논의 경험	61
4.5.2 오픈엑세스에 대한 선호도	63
4.6 저작권 관리	66
4.6.1 저작권 소유 주체	66
4.6.2 저작권 소유에 대한 편집인의 의견	67
4.7 학문분야에 따른 차이 검정	69
4.7.1 원문서비스 실시 방법	69
4.7.2 오픈엑세스에 대한 인지 및 선호도	71
4.7.3 저작권 소유 주체에 대한 의견	73
4.8 설문조사 결과 요약	75

V. 대학부설연구소 등재지의 원문서비스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79
5.1 문제점 분석	79
5.2 개선 방안	81
VI. 결 론	85
참고문헌	87
부 록	91
ABSTRACT	101



표 목 차

<표 1> 2003년~2014년 연구소 등재지 증가현황(2014. 7. 기준) ...	12
<표 2> 문헌 연구를 통한 결과 정리(Swan, 2010)	20
<표 3> 원문서비스 유무 처리내용	24
<표 4> 상용DB 통한 원문서비스(복수 현황)	27
<표 5> 분야별 홈페이지 원문서비스 현황	30
<표 6> 분야별 상용DB 원문서비스 현황	30
<표 7> KCI를 통한 원문서비스 현황	31
<표 8> RISS, NDSL을 통한 원문서비스 현황	31
<표 9> 원문의 중복 서비스	32
<표 10> 홈페이지와 상용DB를 통한 원문서비스	34
<표 11> 홈페이지에 나타난 저작권 안내	35
<표 12> 학문분야별 저작권 안내 방법	35
<표 13> 저작권 명시내용	36
<표 14> 저작권 명시내용의 분야별 차이	37
<표 15> 학문분야별 저작권 소유 주체	38
<표 16> 학문분야별 오픈엑세스 정책 명시 현황	39
<표 17> 학문분야별 저작권양도동의서 사용현황	39
<표 18> 편집자 대상 설문내용	45
<표 19> 학문분야별 응답자수	46
<표 20> 응답자의 소속 대학 유형	46
<표 21> 편집위원장 임기	47
<표 22> 응답자의 학술지 관련 직책	47
<표 23> 응답자의 전공분야	48
<표 24> 학술지 발간을 위한 재원	49
<표 25> 학술지 발간을 위한 전담인력	49
<표 26> 학술지 발간 전담 인력의 인건비 지급	50
<표 27> 인건비 외 대학지원내용	50

<표 28> 가입비 유무	51
<표 29> 회원의 연회비	51
<표 30> 심사비	52
<표 31> 정회원의 논문게재료	53
<표 32> 연구비 수혜가 있는 논문의 게재료	53
<표 33> 원문서비스 방법(복수응답)	54
<표 34> 2가지 이상의 채널을 통한 원문서비스 요인	55
<표 35> 등재지 원문서비스의 선택 기준	55
<표 36> 홈페이지를 이용한 원문서비스의 선택요인	56
<표 37> 홈페이지를 이용한 원문서비스에서의 문제점	57
<표 38> 상용DB를 통한 원문서비스 선택요인	57
<표 39> 상용DB를 통한 원문서비스의 문제점	58
<표 40> 상용DB를 통한 수익	58
<표 41> 상용DB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기여도	59
<표 42> 대학도서관을 통한 원문서비스 선택요인	60
<표 43> 대학도서관을 통한 원문서비스의 문제점	60
<표 44> 비영리기관을 통한 원문서비스 선택요인	61
<표 45> 비영리기관을 통한 원문서비스에서의 문제점	61
<표 46> 편집자의 오픈엑세스 지식정도	62
<표 47> 오픈엑세스 출판에 대한 논의 경험	63
<표 48> 오픈엑세스 논의에서 나타난 문제점	63
<표 49> 오픈엑세스 출판시 예상 문제점	64
<표 50> 응답자 입장에서의 오픈엑세스 선호	65
<표 51> 오픈엑세스 방식으로 학술지 발행시 적절한 원문서비스 기관	65
<표 52> 저작권 소유 주체	66
<표 53> 저작권 안내방법	67
<표 54> 저작권양도동의서 작성여부	67
<표 55> 분야별 상용DB 원문서비스 현황	68
<표 56> 저작권 소유 주체 선택이유에 대한 개방형 응답	68

<표 57> 학문분야에 따른 원문서비스 선택기준의 차이 검정	70
<표 58> 학문분야에 따른 원문서비스 복수시행 이유의 차이 검정 ...	70
<표 59> 학문분야에 따른 편집자의 오픈엑세스 지식 차이 평균비교	71
<표 60> 학문분야에 따른 편집자의 오픈엑세스 지식 차이 검정	71
<표 61> 학문분야에 따른 편집자의 오픈엑세스 선호도 차이 평균비교	72
<표 62> 학문분야에 따른 오픈엑세스 응답자의 선호도 차이 검정 ...	72
<표 63> 학문분야에 따른 오픈엑세스 원문서비스 기관의 차이비교 ...	73
<표 64> 학문분야에 따른 저작권 소유 주체의 차이 비교	74
<표 65> 학문분야에 따른 선호하는 저작권 소유 주체의 차이 비교 ·	74



그 립 목 차

<그림 1> 학술커뮤니케이션의 개념적 모델(Kennan & Kautz, 2007)	8
<그림 2> 대학의 학술지 출판과 유통	11
<그림 3> 연구소 등재지의 분야별 분포	12
<그림 4> 전체 등재지의 분야별 분포	13
<그림 5> CCL의 6가지 이용허락 유형	15
<그림 6> PLOS의 OAS Grid(이용자 권한, 재사용 권한, 저작권)	16
<그림 7> PLOS의 OAS Grid(저자에게서 권한, 자동 게시, 기계적 가독성) ..	17
<그림 8> 물리학 분야에서의 오픈액세스 효과(Harnad & Brody, 2004) ...	19
<그림 9>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서비스	25
<그림 10> 상용DB를 통한 원문서비스	26
<그림 11> KISS와 DBpia를 통한 원문서비스	27
<그림 12> KCI를 통한 원문서비스	28
<그림 13> RISS, NDSL을 통한 원문서비스	29
<그림 14> 홈페이지와 상용DB를 통한 원문서비스	33
<그림 15> 저작권 소유 주체별 비율	37

I.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의 학술정보 생산은 학술세미나, 연구 및 기술보고서, 학술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학술지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학술정보 자원이다. 연구자는 자신의 발견한 새로운 사실과 이론을 논문형식으로 작성하여 학술지에 투고하며, 학회 및 대학부설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에서 학술지를 출판한다. 연구자는 출판된 학술지에 수록된 자신의 논문이 더 많이 노출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인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은 연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출판된 학술지가 폭넓게 이용될 수 있는 배포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KCI에 등재를 원하거나 현재 등재(후보)학술지인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 부합할 수 있는 배포방식을 모색한다. 일반적인 시행하고 있는 배포 채널로서는 학술지 발행기관의 홈페이지와 상용DB가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와 상용DB를 통한 원문제공이 연구자들이 원하고 있는 인용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제공은 몇몇 유명한 학술지외에는 어느 기관에서 출판하고 있는 학술지인지 알지 못하며, 상용DB를 통한 원문제공은 경우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이용이 가능한 문제가 있다.

해외에서는 1960,70년대에 학술지의 상업화가 시작되었고, 학술구매에 따른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판형식으로 오픈액세스가 등장하였다. 오픈액세스는 학술정보에 대하여 무료로 접근 할 수 있고 적합한 용도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복제, 검색, 인쇄, 링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출판 방식이 이용자의 이용확대와 수록논문의 인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출판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오픈액세스 등장 초기 오픈액세스를 통해 인용의 증가를 규명한 실증적 연구발표가 많이 있었다. 2005년 이후 오픈액세스는 정착기에 들어섰으며, 오픈액세스의 성장세는 등장초기보다는 둔화되었지만 20% 내외의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상업적인 오

오픈엑세스 출판사가 생겨났다. 이전 출판사는 출판비용을 구독료에 의존하는 모델이었으나, 현재는 출판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논문처리비용(APC)으로 충당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현재 논문처리비용은 대체로 저자, 연구후원단체, 소속 대학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의 오픈엑세스 연구는 APC 확보방법과 APC 지원정책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다. 현시점에서 오픈엑세스 출판은 세계적으로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하며, 저자의 연구결과물을 전세계 모든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즉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오픈엑세스에 관한 연구가 학회와 대학부설연구소 학술지를 구분하지 않고 진행했던 것과 달리 대학부설연구소 학술지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이들 학술지 중에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연구재단 KCI에 등재되어 있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원문서비스가 어떠한 유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고, 학술지 편집담당자의 원문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또한 오픈엑세스 실현에 선행조건이 되는 저자의 저작권 소유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대학부설연구소에서 시행중인 원문서비스 방법이 인용확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맞는지, 각각의 원문서비스 방법은 인용확대에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현재 대학부설연구소 학술지가 어느 정도 오픈엑세스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오픈엑세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소 등재지의 오픈엑세스 출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 KCI에 등재되어 있는 대학부설연구소 등재(후보)학술지(이하 연구소 등재지) 296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96종 중 등재학술지는 203종이며, 등재후보 학술지는 93종이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소 등재지의 원문서비스 실태와 저작권 귀속 현황을 온라인상에서 조사하였다. 연구소 등재지 296종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최근 3년간(2011~2013)의 원문이 이용가능한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였다. 연구소

등재지의 저작권 귀속 현황은 홈페이지에 나타난 학술지 관련 규정과 투고안내 등에서 저작권 관련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대학부설연구소 설문지 내용에도 저작권 소유 주체를 조사하였다.

둘째, 대학부설연구소 편집자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내용은 대학부설연구소 운영 및 재정에 관한 내용으로, 대학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학술지 발행시 필요한 재원과 연구자에게서 받는 논문처리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자 하였다. 또한 편집자 및 이용자가 갖고 있는 저작권에 대한 생각을 알고자 하였으며, 편집자가 생각하는 오픈엑세스에 대한 지식정도와 문제점을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셋째, 연구소 등재지의 원문서비스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OAS(Open Access Spectrum) 가이드를 참조하여 현재 연구소 등재지가 어느 정도 개방적인가를 분석하였다.

1.3 선행연구

오픈엑세스 출판방식이 해외에서 시작된 만큼 해외에서의 오픈엑세스 관련 연구는 인용증가, 기술적 지원,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오고 있다. 해외 오픈엑세스 관련 연구 중 오픈엑세스 초기인 1993년에서 정착기인 2009년까지,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의 데이터를 기초로 오픈엑세스 학술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 연구에서는 1993년부터 1999년까지를 개척기, 2000년에서 2004년을 혁신기, 2005년에서 2009년을 정착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개척기에서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성장율은 매년 최소 25%에서 60%까지의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2000년 이후에는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증가율이 개척기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연간 평균 증가율은 18%이며, 오픈엑세스 논문의 증가율은 30%에 달한다. 같은 시기 일반 논문의 연간 증가율은 3.5%였다. 2005년부터 시작된 정착기에서는 상업적 오픈엑세스 출판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연구후원기관에서는 오픈엑세스 출판에 필요한 논문처리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2008년 발표된 전체 논문 중 오픈엑세스 논문 비중은 20.4%라고 조사된 연구가

있었으며(Björk et al., 2010),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성장률은 여전히 연간 10% 이상(2009년 기준 성장율11.0%)을 유지하고 있었다(Laakso et al., 2011). 2014년 3월에 발표된 연구보고서에서는 전체 분야에서 오픈엑세스 논문이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Björk & Solomon 2014).

국내에서 학술정보의 유통과 이용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은 학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를 중심으로 오픈엑세스를 시행했을 때의 만족도와 사례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 이와 연계하여 학술정보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선행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연구소 등재지의 원문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로는 국내 오픈엑세스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연구이며, 두 번째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결과물을 서비스했을 때 기대하는 목적에 대한 연구이며, 세 번째로는 학술정보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학술지 발행기관 편집자의 인식과 학술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는 사서의 인식 연구로 구분하였다.

먼저 국내 오픈엑세스의 방법으로 학술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는 오픈엑세스 코리아 서비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품질지수, 만족지수, 성과지수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적용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 이용자는 오픈엑세스를 통한 정보품질과 서비스 품질에 만족하고 있으며, 아무 대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오픈엑세스에 대한 기대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질적 품질 향상을 위해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는 오픈엑세스 제공서비스의 사회적 기여도 및 공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최희운, 황혜경, 백종명, 2012).

생물정보학 분야 주요 연구소와 대학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성과물의 정보공유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조사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논문에 대한 출처의 명확한 표기만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연구정보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연구자들이 오픈엑세스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비하지만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확한

출처를 밝히고 합법적인 목적으로 연구물을 사용한다면 오픈액세스 활동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절한 수준의 저작권 지침과 라이선스가 마련되어 연구성과물의 원활한 관리와 접근 및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정보관리 체제의 구축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장덕현, 노류하, 이수상, 2008).

논문저자의 학술저작물에 대한 권리 및 유통에 대한 인식 연구로는 언론학회 회원 대상으로 학술논문에 대한 권리 및 유통에 대한 의견과 가치관념을 조사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가 있었다. 저자는 논문과 관련하여 논문을 읽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과 논문을 읽은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 학술논문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보기를 원하며, 학술논문이 무료로 이용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유통 및 이용에 대한 통제에 대하여 저자든 학회이든 배타적 권리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상업사이트에서의 유료반대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이는 학술논문이 공공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자는 학술정보의 금전적 가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지숙, 2009).

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의 인식연구에서는 웹DB 업체의 가격정책상 학술지를 선별구입하기 보다는 일괄구입이 유리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학술지 웹DB를 구독하고 있는 기관의 대부분은 대학도서관으로 나타났다. 웹DB 가격은 1988년 이후 10년간 많게는 34배까지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이고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도서관이 웹DB 업체에 의존하는 동안 해외의 사례와 같이 학술지 빅딜 현상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학도서관은 웹DB의 가격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서의 대다수가 오픈액세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는 오픈액세스가 학술지 웹DB 가격의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다른 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개별 대학도서관보다는 국가대표 도서관이나 기관, 대학도서관연합체를 통하여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여기고 있다(정경희, 2008).

국내 이공계 학술논문의 연구비 지원과 오픈액세스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서울소재 S대 이공계 학술논문 출판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다수인 71%의 학술논문이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연구비를 지원받았지만 최종 연구성과물인 학술논문을 오픈액세스로 제공하고 있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정 대학 대상이지만 대학부설연구소의 이공계 학술논문의 경우 대학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종 연구성과물인 학술논문을 오픈액세스로 제공하고 있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신은자, 2010).

정부가 주체가 되어 공공재원에서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구글스칼라 등의 정보검색시스템을 통해 원문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연구비를 지원받아 산출된 연구성과물의 경우 학술지 출판은 물론이며, 디지털파일을 오픈액세스로 제공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해외 사례와 대조를 이룬다. 이에 향후 국내의 연구비 지원 기관은 최종 연구성과물을 오픈액세스 옵션으로 출판하게 하는 것과 디지털파일의 의무제출과 리포지터리의 등재를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대학이 주축이 되어 오픈액세스를 위한 실천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미국의 하버드대, MIT대학같은 유명 대학의 경우 구성원에게 자체 리포지터리 구축 및 콘텐츠 확충에 실효를 거두고 있어 리포지터리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확충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 하였다(신은자, 2010).

국내 학술지 중 상용DB를 통하여 원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무료로 원문을 공개하는 309종의 학술지 편집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 편집인들은 오픈액세스를 선택한 이유가 학술논문의 무료이용확대와 인용 확대의지, 해당 학문분야의 국제적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5% 정도는 발행기관 홈페이지와 무료원문서비스기관에서 동시에 원문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원문을 공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21%되었다. 발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원문이 공개되고 있는 학술지의 경우 해당 분야 연구자들에게 쉬운 접근을 제공할 수 있지만 다른 학술지와 함께 검색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이용률 저하가 나타났다. 또한 오픈액세스를 선택한 이유인 학술성과물의 공유를 실천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 및 발행기관에 따른 차이에서

는 의학이나 공학, 자연과학분야가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보다 오픈액세스 학술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약학, 농수해양학, 공학, 자연과학 분야 편집인들이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 편집인들보다 오픈액세스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2011).

앞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연구자와 이용자 모두 학술정보의 공공성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또한 학술정보를 출판하는 학술기관은 학술지 수록 논문의 노출과 인용확대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원문서비스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학회 중심의 전체학술지 중 일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거나 특정 분야 또는 특정 대학의 학술지 원문서비스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있는 연구소 등재지를 연구대상으로 현재 시행중인 원문서비스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픈액세스 활성화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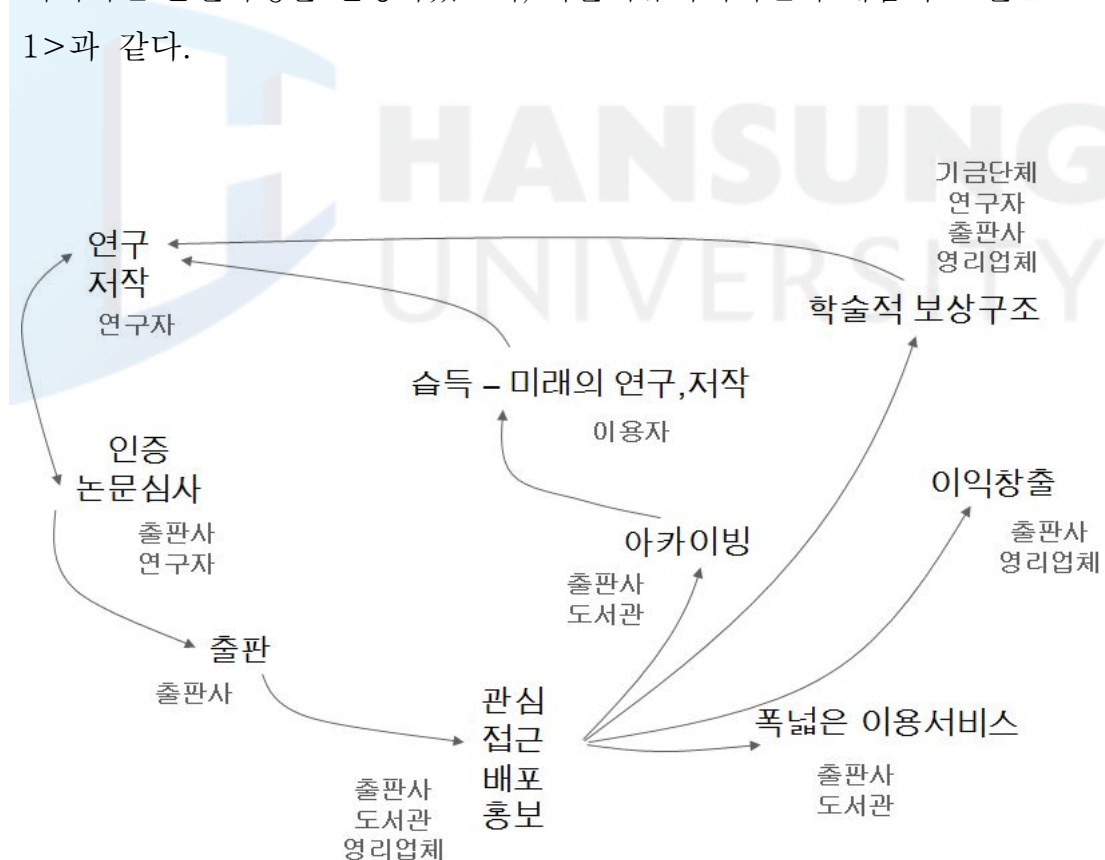


II. 이론적 배경

2.1 대학부설연구소 학술지의 특성

2.1.1 국내 학술지의 출판 및 유통상의 특징

전통적인 학술출판의 과정에서는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 저자, 학술출판사, 학술도서관, 독자 4그룹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Curtis, 2005). Kennan과 Kautz는 학술커뮤니케이션의 개념적 모델을 전통적인 출판형태, 전자 출판의 형태, IT를 기반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출판의 형태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세 개의 개념적 모델은 공통적으로 연구자와 출판사, 도서관을 통한 학술커뮤니케이션 순환과정을 설명하였으며, 학술커뮤니케이션의 개념적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학술커뮤니케이션의 개념적 모델(Kennan & Kautz, 2007)

학술커뮤니케이션 순환과정에서 각 주체별 기능으로,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의 결과물로 논문을 작성한다. 출판사는 동료심사를 통한 논문심사를 통해 인증된 논문을 출판 및 등록을 하게 된다. 출판사와 도서관은 출판된 논문을 배포하여 폭넓은 이용자에게 접근가능하도록 하며, 아카이빙을 통해 이용자가 학술정보에 접근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는 습득한 학술정보를 통하여 자신의 향후 연구와 학술저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출판된 학술정보는 출판사와 영리업체가 홍보와 배포를 통하여 금전적 이익을 창출한다. 연구자는 연구결과물의 출판을 통하여 기금단체의 연구후원과 학계에서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연구성과에 대해 인정을 받으며, 출판사와 영리업체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전통적인 출판과 전자 출판은 배포방법에서 차이가 있는데, 기존의 배포채널과 더불어 인터넷 웹브라우저, 콘텐츠 에그리게이터,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한 논문의 배포가 이루어진다.

국내 학술지 출판 과정은 해외에서 수십 년간 자리 잡은 해외 모델과 상당히 유사하나 출판사로부터 출발한 해외 업체와는 다른 면이 있다. 국내 학술 시장은 학회와 같은 연구기관이 출판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해외와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2). 대학의 경우에도 출판사의 역할을 연구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주체는 연구자, 연구소, 서비스기관, 이용자라고 볼 수 있다.

대학에서의 각 학술커뮤니케이션 주체의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대학 내 연구자로서는 교수, 연구원, 연구팀 등이 있으며, 이들은 독창적인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새로운 발견을 다른 연구자보다 가장 먼저 출판하기를 원한다. 이를 통해 학계의 인정을 받고, 대학 내에서 연구지위를 확보하고, 이용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출판을 통해 이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연구 결과를 널리 배포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우지숙 2009). 대학 내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출판하기 위해 학회, 연구소 등의 학술기관에 논문을 투고한다. 연구소는 소속대학의 연구자로부터 논문을 받거나, 다른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로부터 논문투고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논문투고에 있어, 연구소와 학회는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연구소는 전반적인 학술지 출판을 담당한다. 연구자가 투고한 논문을 수합하고, 연구소 내에 구성되어 있는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논문 심사자 추천 받고,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연구소 내에 있는 편집전문가 또는 외부의 출판업체에 원고를 편집하게 되며, 몇 번의 교정 작업을 통해 책자형태로 인쇄하게 된다. 또한 책자 외에 디지털 형식의 배포파일을 제작한다. 제작된 책자와 디지털 파일은 연구소의 필요와 정책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채널을 통해 이용자에게 배포된다. 일련의 학술지 출판과정에서 연구소는 인쇄비, 우편비, 인건비 등 여러 가지 금전적인 비용을 대학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출판지원은 자체 재정으로 학술지를 출판하고 있는 학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소에서 출판한 학술지는 도서관을 통해 배포되어 무상으로 이용가능하며, 일부는 서점을 통해 유통된다. 인쇄물 외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파일 형태의 학술지는 온라인상으로 연구소 홈페이지와 비영리기관(KCI, RISS, NDSL 등)과 상용DB를 통해 배포된다. 일반적으로 연구소 홈페이지와 비영리기관에서는 대학의 학술지가 이용자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이 외에도 학술정보를 서비스하는 업체(상용DB)와의 저작권 계약을 통하여 온라인 전송 및 판매 등 이용에 관한 권리를 배타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학술지를 배포하는 방법이 있다. 상용DB는 최종 디지털 파일을 재가공, 파일의 형태의 수정 후 서비스한다. 또한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기관에 소속된 이용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관계가 없는 기관에 소속된 이용자와 개인이용자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해당 학술지를 이용할 수 있다.

대학의 도서관은 여러 가지 학술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하며, 보존한다. 여러 종류의 인쇄물과 디지털 파일을 수집하고 있다. 학술정보의 일부는 상용DB와 계약을 통해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의 지원으로 구매가 이루어진다. 상용DB를 통한 학술정보 구매는 대학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학에서는 학술정보를 상업DB를 통해 묶음 단위로 구매하고 있었다(정경희, 2008).

대학의 이용자는 주로 소속 대학의 도서관을 통해 무상으로 학술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직접 학술기관과 비영리기관, 상업DB에 접속하

여 학술정보를 이용하고 습득할 수 있다.

대학에서의 학술지 출판과 유통에서의 특징은 연구소에서 학술지 출판과정에서 대학의 지원이 있으며, 대학도서관에서 상용DB를 통한 학술정보 구매시 대학의 지원이 있다는 점이다.



<그림 2> 대학의 학술지 출판과 유통

2.1.2 학문분야별 특성

1) 최근 10년간 연구소 등재지 증가 현황

지난 10년간의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변화 추이를 보면 전체등재지 종수는 2003년 1,187종이었으며, 2014년에는 2,089종으로 56.8%가 증가하였다. 연구소 등재지는 2003년 86종 이었으며, 2014년 296종으로 양적으로 3.4배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등재지가 2003년 1,187종에서 2014년 2,089종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연구소 등재지가 증가속도가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등재지에서 연구소 등재지 비율은 2003년 7.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4년 기준으로는 14.2%으로 2배 증가하였다. 등재지 전체에서 학회 및 기타 연구기관 등재지가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연구소 등재지가 10년간 종수와 비율분포에서 연구소 외 등재지에 비해 급격히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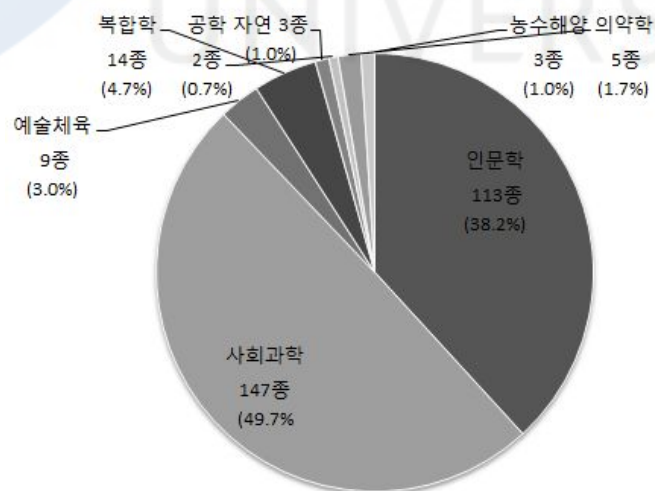
<표 1 참고>¹⁾

<표 1 > 2003년~2014년 연구소 등재지 증가현황(2014. 7. 기준)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등재지 종수	1,187	1,324	1,465	1,578	1,741	1,924	2,011	2,103	2,159	2,149	2,107	2,089
연구소 등재지 종수	86	102	125	146	183	237	266	288	303	303	296	296
비율 (%)	7.2	7.7	8.5	9.3	10.5	12.3	13.2	13.7	14.0	14.1	14.0	14.2

2) 학문분야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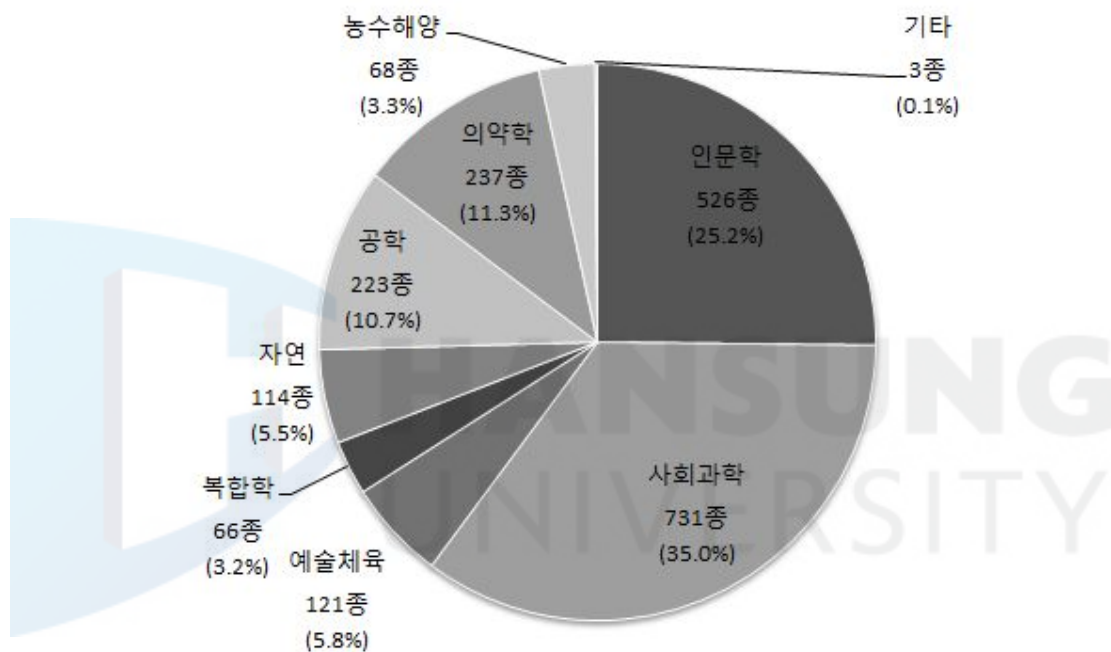
연구소 등재지에서의 학문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과학이 147종 49.7%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문학이 113종, 38.2%를 차지하고 있었다. 예술체육, 복합학, 공학, 자연, 농수해양 의약학 분야의 등재지는 36종 (12.1%)이며, 전체 연구소 등재지에서 인문사회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87.9%로 나타났다. <그림 3>.



<그림 3> 연구소 등재지의 분야별 분포

1) KCI 정보이용 신청을 통하여 2014년 7월 14일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진흥팀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자료임.

전체 등재지에서의 분야별 비중은 사회과학이 731종(35.0%), 인문학이 526종(25.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의약학은 237종으로 11.3%였으며, 공학은 223종(10.7%)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종수의 학문분야는 복합학이며, 66종, 3.2%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농수해양 분야가 68종, 3.3%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등재지에서의 분야별 특징은 연구소 등재지에 비해 가장 많은 종수의 분야와 가장 적은 분야간 편차는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구소 등재지에 비해서는 인문사회 분야의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그림 4>.



<그림 4> 전체 등재지의 분야별 분포

2.2 오픈엑세스

2.2.1 오픈엑세스의 특징 및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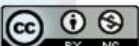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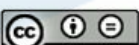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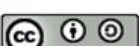
오픈 액세스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에 발표된 부다페스트 (Budapest) 오픈엑세스 선언에서 “저자들이 재정적, 법률적, 기술적 장벽없이 인터넷을 통해 학술논문의 원문을 누구나가 무료로 접근하여 읽고, 다운로드

하고, 복제하고, 배포하고, 인쇄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오픈 액세스 운동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구독료 기반의 저널들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으로 ‘오픈 액세스 저널(Open Access Journal)’과 ‘셀프 아카이빙(Shelf Archiving)’으로 나눈다. 오픈 액세스 저널은 무료로 이용 가능한 전자저널로서, 질적으로 통제된 논문을 독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접근에 대한 비용을 독자나 독자의 소속 기관에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큰 특징이다. 또 하나의 오픈 액세스 운동의 실천 전략인 셀프 아카이빙은 영구적 이용을 위해 지식저장소(Repository)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자 셀프 아카이빙은 저자들이 자발적으로 프리프린트(preprint) 또는 포스트프린트(postprint)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직접 아카이빙하면, 이용자가 디지털 형태의 논문을 접근비용과 저작권 장벽 없이 해당 학술지 논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픈 액세스를 추진과정에서 접근비용만을 제거한 형태와 접근비용과 허가장벽 모두를 제거한 형태가 나타났다. 접근비용만을 제거한 형태는 ‘weak 오픈 액세스’로, 접근비용과 허가장벽을 모두 제거한 형태는 ‘strong 오픈 액세스’로 표현하였다(Suber & Harnad, 2008). 이후 조금 더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접근비용과 허가장벽을 모두 제거한 형태는 ‘libre 오픈 액세스’라는 용어로, 접근비용만을 제거한 형태는 ‘gratis 오픈 액세스’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Suber(2008). 오픈 액세스 학술지를 통한 오픈 액세스 실현을 위해 학술지 출판사는 gratis와 libre를 선택할 수 있다. 오픈 액세스 학술지와 셀프 아카이빙 정책과의 차이점은 셀프 아카이빙이 심사전 논문과 심사후 논문을 주로 제공한다면, gratis 학술지는 출판 후 논문을 주로 제공한다. gratis 학술지는 엠바고(이용자의 무료접근 시점)에 따라 출판즉시,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4개월 이내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libre는 접근비용장벽과 허가장벽이 모두 제거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며, 허가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라이선스로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 있다.

CCL은 원칙적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논문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대표적인 4가지의 이용허락조건을 뽑아낸 다음 이를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의사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적용하고 이용자는 적용된 CCL을 확인한 후에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4가지 이용허락조건은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이며, 이를 통해 만들어진 6가지 조건은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로 구성되었다. 6가지 유형 중 CC-BY(저작자표시) 명시는 저작자를 표시한다는 조건만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없이 학술정보를 복제, 배포, 공중송신, 포맷변경과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며, 영리적 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라이선스	이용조건	문자표기
	저작자표시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CC BY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CC BY-NC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CC BY-ND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 BY-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 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CC BY-NC-ND

<그림 5 > CCL의 6가지 이용허락 유형

오픈엑세스 추진에서 학술지 출판사가 어느 정도 오픈엑세스 가까운지 참조하기 위한 모형으로 Open Access Spectrum(이하 OAS)가이드가 있다. OAS 가이드는 2013년, PLOS, SPARC와 OASPA가 공동으로 제안하였다. 출판사가 학술지를 어느 정도 오픈할지, 또는 이미 오픈엑세스 출판을 하고 있는 출판사가 어느 정도 오픈되어 있는지를 이 가이드를 적용하여 가늠할 수 있다. OAS 가이드의 내용은 부다페스트 오픈엑세스 선언을 토대로 하였으며, 오픈엑세스의 6가지 핵심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구성요소별 오픈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ACCESS	이용자 권한	재사용 권한	저작권
	모든 논문이 출판 즉시 무료로 읽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	재사용, 재가공 가능(예, CC-BY)	아무런 제한 없이 저자가 저작권 보유
	6개월 이내의 엠바고 이후 모든 논문의 무료 구독 권한 부여	특정 조건 및 제한 내에서 재사용, 재가공, 변형 가능	저자가 저작권 보유 / 출판사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허락하고 저자의 재사용 권한(프리젠테이션, 교육 및 파생자료 생성에 대한)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용 권한 허용
	6개월 이상의 엠바고 이후 모든 논문의 무료 구독권한 부여	특정 조건 및 제한 내에서 재사용 가능(재가공, 변형 불가, CC BY-ND)	—
	출판즉시 일부 논문에 무료구독 권한 부여(하이브리드 모델 포함)	공정이용 외에 일부 논문만 재사용 가능(하이브리드 모델 포함)	저자가 저작권 보유 / 출판사는 제한된 저자의 재사용 (프리젠테이션, 교육 및 파생자료 생성에 대한)권한을 부여
	모든 논문을 구독하기 위해서는 가입, 회원자격, 수수료 또는 비용이 필요함	공정이용/구매, 저작권의 예외사항과 기타 예외 사항 외에는 재사용 금지 (All Rights Reserved)	출판사가 저작권 보유, 저자는 재사용 권한이 없음, 공정이용 가능

<그림 6> PLOS의 OAS Grid(이용자 권한, 재사용 권한, 저작권)

OAS 가이드의 6가지 구성요소는 이용자 권한(Reader Rights), 재사용 권한(Reuse Rights), 저작권(Copyrights), 저자 게시 권한(Author Posting Rights), 자동게시(Automatic Posting), 기계적 가독성(Machine Readability)

로 구성되었다.

이용자 권한(Reader Rights)에서는 모든 논문이 출판 즉시 무료로 읽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경우 높은 수준의 개방 정도가 나타나며, 가입 또는 회원 자격이 필요하며 비용이나 수수료가 요구될 경우 낮은 수준의 개방임을 알 수 있다. 재사용 권한(Reuse Rights)에서는 재사용과 재가공 권한이 관대할 경우, 예를 들면 CCL의 CC-BY 같은 경우에 높은 수준의 개방 정도가 되며, 공정이용, 구매, 저작권의 예외사항과 기타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재사용이 가능할 경우 낮은 개방임을 알 수 있다. 저작권(Copyrights)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저자가 저작권을 보유할 경우 높은 수준의 개방 정도가 되며, 출판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공정사용 외에 저자가 재사용이 불가하면 낮은 수준의 개방정도가 된다.

ACCESS	저자게시 권한	자동 게시	기계적 가독성
 OPEN ACCESS  CLOSED ACCESS	저자는 리포지터리 또는 웹사이트에 지연시간 없이 어떤 버전이라도 게시할 수 있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리포지터리에 모든 논문의 사본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는 경우	논문의 전문(full-text), 메타데이터, (형식과 의미적 마크업 형식을 포함하는) 데이터와 인용이 공개된 지침에 따라 API를 통해 접근 가능할 경우
	저자는 지연시간 없이 리포지터리 또는 웹사이트 (출판사의 결정에 따라) 몇 가지 버전을 게시할 수 있는 경우	6개월 이내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리포지터리에 모든 논문의 사본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는 경우	논문의 전문(full-text), 메타데이터와 인용이 공개된 지침에 따라 API를 통해 접근 가능할 경우
	저자는 리포지터리 또는 웹사이트에 몇가지 버전(출판사의 결정에 따라)을 일부 지연된 시간(출판사의 결정에 따라)에 게시할 수 있는 경우	12개월 이내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리포지터리에 모든 논문의 사본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는 경우	논문의 전문(full-text), 메타데이터와 인용이 공개된 지침에 따라 특별한 허가 또는 등록 없이 크롤링 할 수 있는 경우
	저자는 특정 리포지터리 또는 웹사이트에 시간지연 없이 일부 버전(출판사의 결정에 따라)을 게시할 수 있는 경우	12개월 이내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리포지터리에 일부의 논문의 사본만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는 경우	논문의 전문(full-text), 메타데이터와 인용이 공개된 지침에 따라 허가를 얻어 크롤링 할 수 있는 경우
	제한된 리포지터리 또는 웹사이트에서 제한된 버전만을 게시가능할 경우	다른 리포지터리에 자동으로 게시할 수 없을 경우	크롤링에 사용할 수 있는 전문(full-text)이 없을 경우

<그림 7> PLOS의 OAS Grid(저자게시 권한, 자동 게시, 기계적 가독성)

저자 게시 권한(Author Posting Rights)에서는 저자가 리포지터리 또는 웹사이트에 지연시간 없이 어떤 버전이라도 게시할 수 있을 경우 높은 수준의 개방정도가 되며, 제한된 리포지터리 또는 웹사이트에서 제한된 버전을 게시할 경우 낮은 수준의 개방이 된다. 자동 게시(Automatic Posting)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리포지터리에 논문의 사본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는 경우 높은 수준의 개방이 되며, 다른 리포지터리에 자동으로 게시할 수 없을 경우 낮은 수준의 개방이 된다. 기계적 가독성(Machine Readability)에서는 논문의 전문(full-text), 메타데이터, (형식과 의미론적 마크업 형식을 포함하는)데이터와 인용이 공개된 지침에 따라 API를 통해 접근 가능할 경우 높은 수준의 개방이며, 크롤링(crawling)²⁾에 사용할 수 있는 전문(full-text)이 없을 경우 개방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2.2.2 오픈엑세스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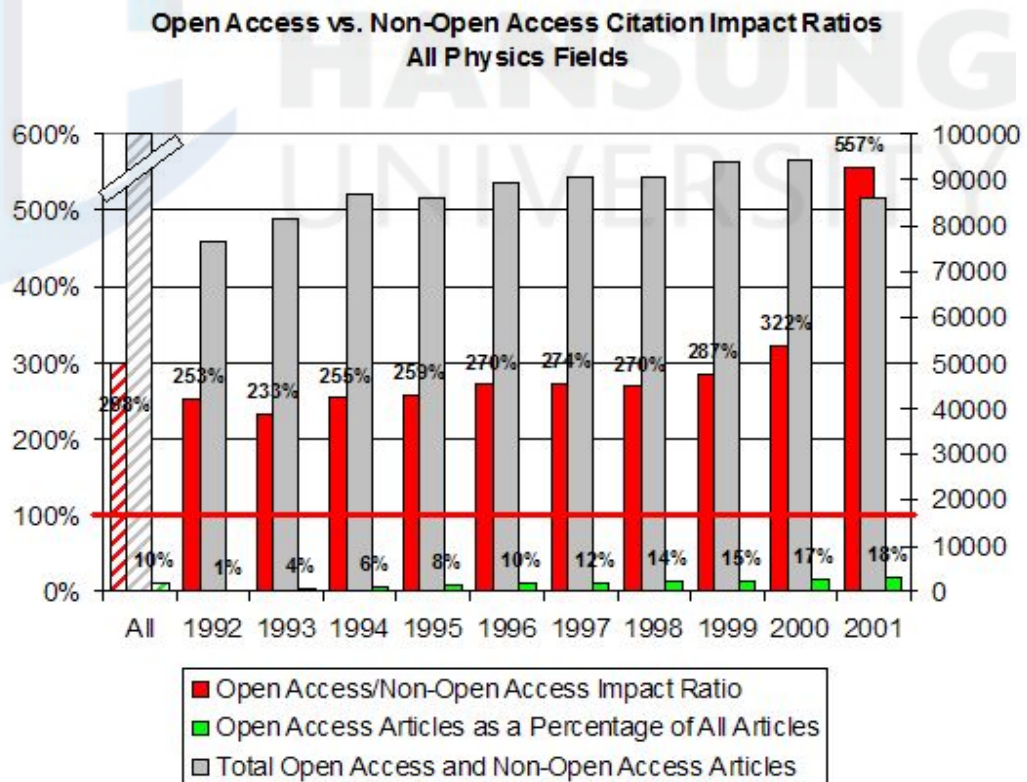
오픈엑세스 출판은 출판과 이용에 관계된 여러 그룹에게 장점이 있으며, 저자, 독자, 교사와 학생, 도서관, 대학, 학술지 및 출판사, 펀드기관, 정부, 시민 그룹의 다양한 대상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 특히 오픈엑세스를 통하여 저자의 연구결과물은 어떤 권위와 인기를 가진 구독기반의 학술지보다 전세계 이용자에게 명백한 이용확대와 연구 영향력을 증대시킨다. 학술지와 출판사에게는 논문의 노출, 검색, 이용도를 높인다. 학술지를 오픈엑세스로 출판할 경우, 구독자 수와 인용지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학술지의 논문제출 증가와 홍보효과를 제공한다(Suber, 2012).

2000년대 이전 오픈엑세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무료 온라인의 이용 효과를 중심으로 다른 연구가 있었다. Lawrence는 DBLP(dbLP.uni-trier.de)에서 얻은 컴퓨터 과학 및 관련 분야에서 1989년부터 2000년까지 출판된 119,924건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ResearchIndex를 통해 자기 인용을 제외한 후 온라인의

2) 크롤링(crawling): 무수히 많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수집하여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 어느 부류의 기술을 얼마나 빨리 검색 대상에 포함시키냐 하는 것이 우위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최근 웹 검색의 중요성에 따라 발전되고 있다.[출처: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이용향상을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인용횟수와 온라인 서비스간에는 명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오프라인 기사의 평균 인용수는 2.74건이었으며, 온라인 기사의 인용 평균은 7.03건으로 157% 증가하였다 (Lawrence, 2001).

이러한 오픈엑세스 논문의 인용을 확대에 대한 연구는 물리학 분야에서도 이루어졌다. 물리학 분야 학술지에서 오픈엑세스와 비오픈엑세스(Non-Open Access)의 영향력을 평가한 연구가 있었다. 연구에서는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에서 10년간(1992년-2001년) 발행한 14,000,000건의 샘플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오픈엑세스 대비 오픈엑세스의 10년간의 인용 비율 평균은 298%에 이르렀다. 인용비율이 가장 낮은 연도인 1993년에도 인용비율은 비오픈엑세스에 비해 233%를 보였으며, 이후에도 200%이상의 인용효과를 꾸준히 보이고 있었다. 2001년에는 비오픈엑세스 대비 557%의 놀라운 인용효과를 보여주었다(Harnad & Brody, 2004).



<그림 8> 물리학 분야에서의 오픈엑세스 효과(Harnad & Brody, 2004)

오픈엑세스 초기에 연구되었던 자료를 검토하여, 오픈엑세스의 인용효과를 정리한 연구결과가 있었다(Swan, 2010). 연구에서는 오픈엑세스의 장점을 4가지 구성 요소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일반적 장점으로, 이전에 접근이 없었던 대중들이 인용의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가 될 수 있는 장점이며, 두 번째는 전세계의 잠재적인 이용자들의 후속 이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셋째로, 저자는 자신들의 기사보다 더 좋은 기사를 오픈엑세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넷째로, 이용자는 부실한 내용의 기사보다 더 많이 이용된 양질의 기사를 검색하여 얻을 수 있다. 문헌 검토를 통한 정리 결과에서 오픈엑세스를 통해 긍정적인 장점을 찾은 연구가 27건이었으며, 인용에 대한 장점이거나 단점을 찾지 못한 연구가 4건이었다. 분야별로는 물리/천문(170%–580%), 의학(300%–450%), 농업 과학(200%–600%)분야에서 인용의 증가가 크게 나타났으며, 수학(35%–91%), 생물학(–5%–136%), 전기 기술(51%), 철학(45%)분야에서는 인용의 증가가 다른 분야에 비해 크지 않았다.

<표 2> 문헌 연구를 통한 결과 정리(Swan, 2010)

Measure	Result
Studies finding a positive Open Access citation advantage	27
Studies finding no Open Access citation advantage(or an OA citation disadvantage)	4
Size of OA citation advantage when found (and where explicitly stated by discipline)	% increase in citations with Open Access
Physics/astronomy	170 to 580
Mathematics	35 to 91
Biology	-5 to 36
Electrical engineering	51
Computer science	157
Political science	86
Philosophy	45
Medicine	300 to 450
Communications studies (IT)	200
Agricultural sciences	200 to 600

법률분야에서도 오픈엑세스를 통한 인용 확대 관련 연구가 있었다. 미국 시사 전문주간지 US News에서 분류한 대학 랭킹을 기준으로 1-50위까지는 1계층으로 하고 51-147위는 2,3계층으로, 147위 이상은 4계층으로 분류하였다. 해당 대학에서 발간된 법률리뷰에서 1990년에서 2012년까지 오픈엑세스의 인용의 증가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문서는 3,489개이다. 1계층에서는 16.8%의 인용 증가를 보였으며, 중간계층은 89.7%로 급등하였으며, 하위계층은 81.2%의 인용 증가를 보였다. 또한 동일한 기간에서 오픈엑세스 문서 3,489개와 비오픈엑세스(Non-OA) 문서 2,553개와의 인용수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오픈엑세스 문서의 평균 인용은 35.9건이며, 비오픈엑세스의 평균 인용수는 31.4건으로, 오픈엑세스가 비오픈엑세스에 비해 인용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Donovan, Watson & Osborne, 2014).

4가지 학문분야(생태, 응용 수학, 사회학, 경제학)에서 유료 접근 사용(TA, Tall Access)에 비해 오픈 액세스(OA)방식이 저널과 논문이 어느 정도의 인용 증가를 보이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2003년 WoS(Web of Science)에 등록된 인덱스를 사용하였으며, 오픈엑세스 유무는 OAIster, OpenDOAR, Google 및 Google Scholar 검색을 통해 결정하였다. 4,633개의 샘플 중, 2280개(49%)는 오픈엑세스 방식으로 접근 가능하였다. 유료 접근 사용 기사는 평균 5.76의 인용수를 나타내었고 오픈엑세스는 9.04의 평균 인용수를 나타내었다. 오픈엑세스는 유료 접근 사용보다 큰 차이의 인용 확대 효과를 보여주었다. (Norris, Oppenheim & Rowland, 2008).

오픈엑세스 논문의 인용을 증가는 의학분야에서도 입증되었다. 오픈엑세스 유무의 식별은 2011년 8월 기준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정보를 사용하였으며, 저널의 발간 기간과 분야는 Ulrich's periodicals directory에서 가지고 왔다. 비교에서는 저널에 수록된 문서 수량에 대한 가중치 뿐만 아니라 저널 등급을 반영하여 수행하였다. 오픈엑세스 저널과 구독기반 저널의 비교를 위하여 두 가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WoS(Web of Science) 데이터를 사용하여 오픈엑세스 저널 610종과 구독기반 저널 7,609종을 비교하였으며, 두 번째로 Scopus 데이터를 사용하여 오픈엑세스 저널 1,327종과 구독기반 저널 11,124종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저

널 당 문서 수량의 가중치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오픈액세스의 평균 인용율은 구독기반 저널에 비해 30% 가량 높게 나타났다(Björk & Solomon, 2012).

여러 가지 학문분야에서 오픈액세스가 가지는 인용증가 효과를 비교한 연구가 있었다. DOAJ에 등록되어 있는 9개 분야(물리학, 수학, 화학, 경제학, 생물학, 환경과학,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오픈액세스 저널에서의 인용효과에 대한 연구이며, 1999년, 2001년, 2003년에 발표된 문서를 9개 분야별로 30개씩 선정하였다. 전체 문서는 270개이다. 270개 문서의 인용현황을 위해 Scopus(2007년 3월 기준)검색하였다. 조사결과, 270개 문서는 761회 인용되었으며, 문서당 평균 2.8회(표준편차 4.7) 인용되었다. 각 분야에서의 인용수와 전체에서 해당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물리학 95회(12.5%), 수학 44회(5.8%), 화학 63회(8.3%), 경제학 154회(20.2%), 환경과학 63회(8.3%), 생물학 192회(25.2%), 심리학 28회(3.7%), 사회학 24회(3.2%), 인류학 98회(12.9%)로 나타났다. 분야별 차이에서는 경제학과 생물학은 모든 인용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만큼 많은 인용이 있었으며, 심리학과 사회학은 이보다 훨씬 적은 인용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오픈액세스를 통한 인용의 효과는 학문분야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onta, Ünal & Al, 2007).

오픈액세스 출판에 따른 인용증가에 대한 연구는 오픈액세스 등장 초기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개별 학문분야에 따른 인용증가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서 오픈액세스를 통한 인용의 증가는 학문분야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모든 학문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소 등재지의 원문서비스 및 저작권 귀속 현황

3.1 조사방법 및 내용

연구소 등재지의 원문서비스 현황과 저작권 귀속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있는 연구소 등재지 296종(2014년 7월 기준)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KCI에 등록된 전체 연구소 등재지는 2,159종이며, 이중 13.7%가 등재지로 선정되었다.

등재지 선정은 국내에서 발간된 학술지 중 한국연구재단의 체계평가(정량평가)와 내용평가(정성평가)를 거쳐, 80점 이상은 등재후보학술지로, 85점 이상은 등재학술지로 선정된다. 선정된 등재학술지는 3년마다 계속평가를 받으며, 등재후보학술지는 선정 1년 이후 매년 계속평가를 통해 등재지 자격을 유지 또는 등재지로 승격하며, 80점 미만은 등재지 자격을 상실한다. 등재지는 전체 학술지 중 국가의 객관적인 평가와 절차를 통과한 학술지이며, 주기별 계속평가 실시로 형식상, 내용상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조사기간은 2014년 7월 25일에서 31일까지이며, 등재지 홈페이지와, 상용 DB, KCI와 비영리기관에 접속하여 원문서비스 유무와 저작권 귀속 내용을 조사하였다.

원문서비스 제공 유무는 최근 3년(2011년~2013년)의 원문을 서비스하고 있는가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였다. 각 등재지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 KCI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구소 등재지 목록을 이용하였다. 홈페이지 접속 후 필요시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원문서비스 유무를 조사하였다. 조사기간 홈페이지 개편, 웹호스팅 만료 등의 일시적 접속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원문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상용 DB를 통한 원문서비스 현황은 국내에서 학술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는 KISS, DBpia, eArticle, 교보스콜라, 뉴논문에서 등재지 또는 연구소를 검색하여 조사하였다. 비영리기관 중 KCI의 원문서비스 조사는 등재지명을 검색하여 조

사하였다. 조사 중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아 진행한 논문은 등재지 발행기관의 동의와 상관없이 KCI에서 원문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해당 등재지 수록 논문 중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만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KCI 원문서비스 시행에서 제외하였다.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서비스 중인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서비스 중인 NDSL(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의 원문서비스 조사는 기관 이용자가 아닌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원문서비스 유무를 조사하였다. 이는 RISS에서는 상업DB와 연계되어 있는 논문은 협약된 기관에는 무상으로 공급하지만 개인에게는 유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표 3> 원문서비스 유무 처리내용

원문서비스 채널	원문서비스 내용	원문제공 여부
홈페이지	최근 3년간 발행 등재지를 연구소 홈페이지 또는 해당 등재지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서비스	제공
	가입 회원, 연회비 납부 회원에게 원문서비스	제공
	조사기간 홈페이지 일시 접속불가	미제공
	최근 3년간 발간된 모든 등재지가 아닌 최근 발행 등재지만 원문서비스	미제공
	해당 등재지가 상용DB에 링크됨	미제공
상용DB	최근 3년간 해당 등재지의 논문검색 가능	제공
	최근 3년 이전에 발행한 등재지를 대상으로 원문서비스	미제공
	최근 발행 등재지 일부만 원문서비스	미제공
비영리기관	최근 3년간 해당 등재지의 원문서비스	제공
	해당 등재지가 상용DB에 링크됨	미제공
	등재지 수록 논문 중 연구재단 연구사업으로 진행한 일부 논문만 원문서비스(KCI 경우)	미제공
	기관 내에서 접속시에만 원문서비스	미제공

연구소 등재지의 저작권 귀속 현황 조사는 등재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연구소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어떠한 방법 및 내용으로 안내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안내방법은 규정, 저작권양도동의서, 투고 안내를 통한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저작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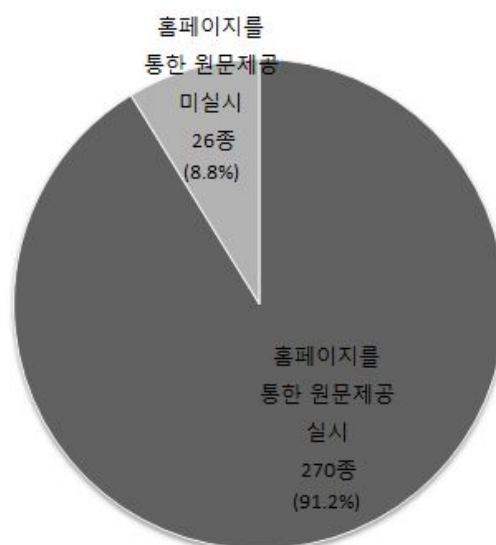
지 조사하였다. 저작권 내용은 상업적 이용과 복제 및 전송, 그리고 판권, 저작권, 출판권으로 포괄적으로 명시한 경우 단순표기로 분류하였다. 저작권 소유 주체를 조사하기 위해 논문 투고시 안내사항과 학술지 관련 규정을 살펴 보았다. 저작권 소유 주체는 저자, 연구소, 저자와 연구소 공동소유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이중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할 경우 오픈액세스 정책을 명시하고 있는지 조사하였으며, 연구소 소유이거나 연구소와 저자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할 경우 저자권양도동의서 사용 여부를 조사하였다.

3.2 연구소 등재지 원문서비스 현황

3.2.1 원문서비스 채널별 현황

1)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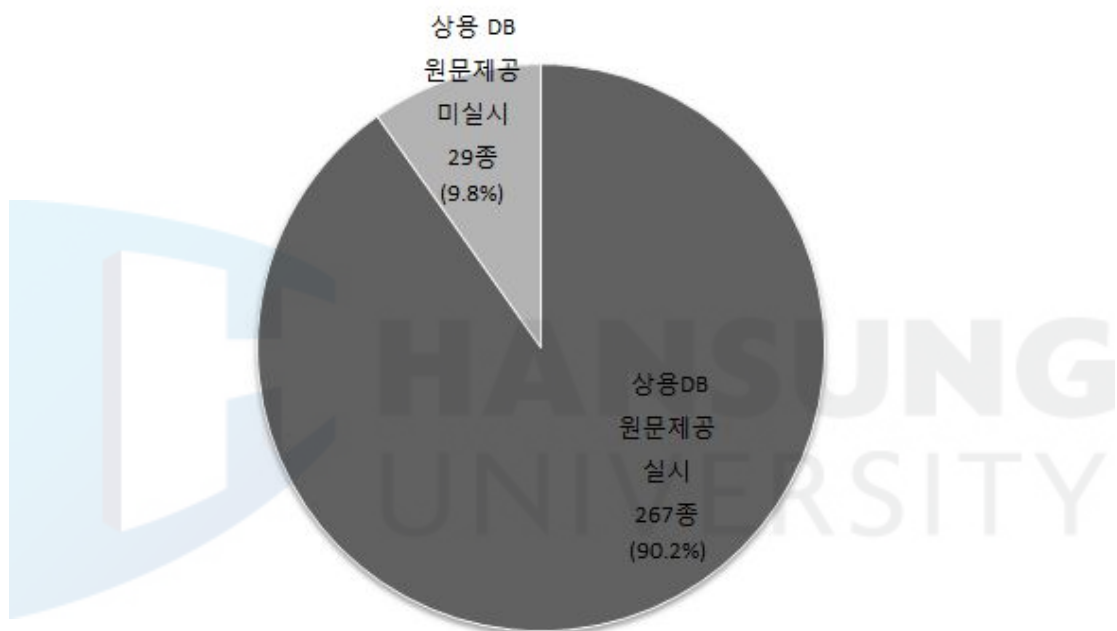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서비스 중인 연구소 등재지는 270종으로 조사되었으며, 연구소 등재지 중 91.2% 해당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서비스를 하지 않는 등재지는 26종(8.8%)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등재지가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9>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서비스

2) 상용DB

상용DB를 통한 원문서비스 등재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연구소 등재지 296종 중 90.2%인 267종이 상용DB를 통한 원문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용DB를 사용하지 않는 등재지는 29종, 9.8%로 조사되어 연구소 등재지 대부분이 상용DB를 통해 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재지 중 37종은 2개의 상용DB 통해 서비스 중이며, 1종은 3개의 상용DB를 통해 서비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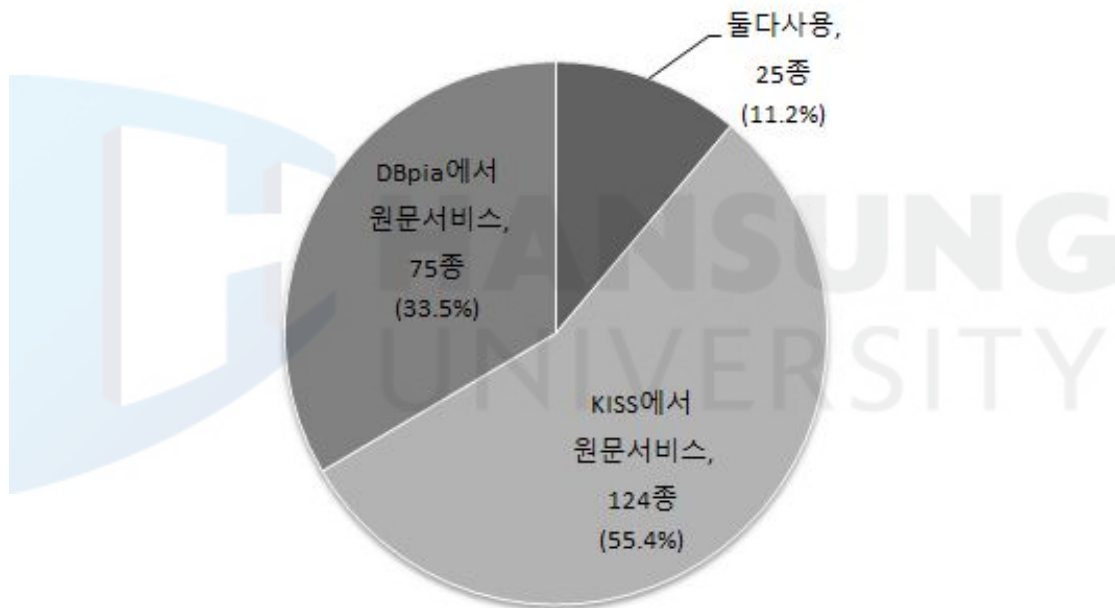
<그림 10> 상용DB를 통한 원문서비스

국내 상용DB는 KISS, DBpia, eArticle, 교보스콜라, 뉴논문 등 5개이며, 각 DB별 서비스 중인 등재지 현황은 <표 4>와 같다. 가장 많은 등재지를 서비스하고 있는 DB는 KISS이며, 149종(50.3%)을 서비스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DBpia(33.8%)가 100종을 서비스하고 있었다. 교보스콜라, eArticle가 서비스 중인 등재지 종수는 각각 29종(9.8%)과 25(8.4%)종이었으며, 뉴논문이 3종(1.0%)을 서비스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상용DB를 통한 원문서비스(복수 현황)

상용DB 종수	KISS	DBpia	교보스콜라	eArticle	뉴논문
학술지 종수	149	100	29	25	3
연구소등재지 서비스비율(%)	50.3	33.8	9.8	8.4	1.0

상용DB 중 가장 많은 등재지의 원문을 서비스 중인 KISS와 DBpia를 이용 중인 등재지 종수를 조사하였다. 2개의 상용DB를 통해 서비스 중인 등재지는 224종이며, 이중 KISS만을 사용 중인 등재지는 124종, 55.4%로 조사되었으며, DBpia만을 통해 서비스 중인 등재지는 75종, 33.5%로 조사되었다. KISS와 DBpia 모두를 통해 서비스 중인 등재지는 25종, 11.2%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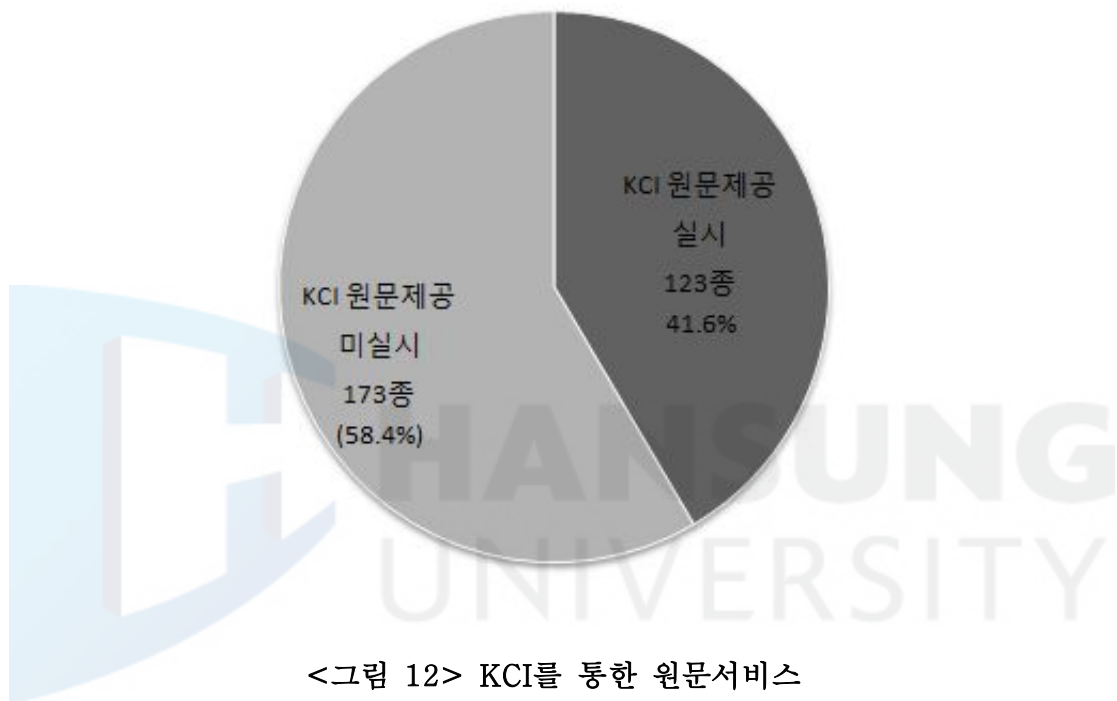


<그림 11> KISS와 DBpia를 통한 원문서비스

3) 비영리기관

홈페이지와 상용DB를 통한 원문서비스 외에 외부기관을 통해 원문서비스를 하고 있는 등재지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상용DB 외에 기관에서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비영리기관으로 분류하였다. 대표적인 비영리기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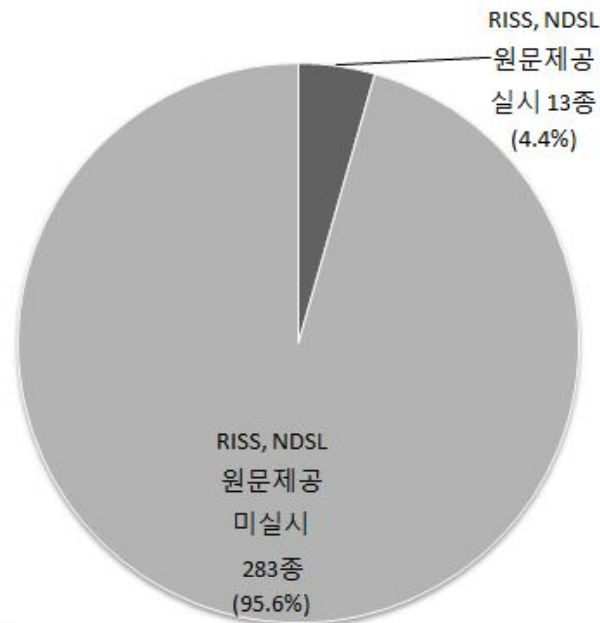
학술지를 중점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KCI와 RISS, NDSL을 통한 원문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였다. 비영리기관 중 KCI를 통해 원문서비스를 하고 있는 연구소 등재지는 123종(41.6%)로 조사되었으며, 아직 하고 있지 않은 등재지는 173종(58.4%)로 나타났다. KCI는 2013년부터 학술기관의 원문제공 동의를 거쳐 원문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림 12> KCI를 통한 원문서비스

비영리기관 중 RISS와 NDSL을 통해 원문서비스를 하고 있는 연구소 등재지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13종의 연구소 등재지가 RISS와 NDSL을 통해 원문서비스를 하였다. 이중 RISS를 통해 서비스 중인 등재지는 7종이었다. RISS의 경우, 각 대학의 dCollection에 수록된 학술정보의 통합검색 및 이용을 제공하기 위해 구축되었으나, 대학의 dCollection이 대학 내 학술정보를 통합관리 보다는 현재 학위논문을 주로 관리하고 있었다. RISS에서의 학술지 원문서비스는 KISS와 DBpia와 같은 상용DB와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기관이용자가 아닌 경우 상용DB 연계로 인해 비용을 지불해야만 원문이용이 가능하였다. NDSL의 경우, 주로 과학기술분야 학술지의 원문을 서비스하고 있었으며, 연구소 등재지 중 NDSL을 통한 원문서비스

는 6종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3 > RISS, NDSL을 통한 원문서비스

3.2.2 원문서비스의 분야별 차이

1) 홈페이지

분야별 홈페이지에서 원문서비스를 하고 있는 등재지에서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자연, 공학, 농수해양 분야는 모든 연구소 등재지가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서비스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약학 분야도 4종, 80.0%가 홈페이지에서 원문서비스를 실시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문학은 99종, 87.6%, 사회과학이 130종, 88.4%이며, 예술체육은 7종 77.8%, 복합학은 10종, 71.4%가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특징은 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의 과학기술 관련 학문분야가 인문사회 분야에 비해 홈페이지 원문서비스에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분야별 홈페이지 원문서비스 현황

분야 종수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합계
연구소등재지 종수	113	147	9	14	3	2	5	3	296
홈페이지 서비스 종수	104	135	8	11	3	2	4	3	270
서비스 비율	92.0	91.8	88.9	78.6	100.0	100.0	80.0	100.0	91.2

2) 상용DB

상용DB를 통해 원문서비스 중인 연구소 등재지의 분야별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인문학 107종, 94.7%, 사회과학 131종 89.1%이며, 예술체육 분야가 9종, 100%, 복합학 12종, 85.7%로 나타났다. 자연 2종, 66.7%로 나타났으며, 의약학 4종, 80.0%, 농수해양, 2종 66.7%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인문사회분야와 예술체육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용DB를 통해 서비스 중인 등재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공학은 2종 모두 상용DB를 통해 원문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분야별 상용DB 원문서비스 현황

분야 종수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합계
연구소등재지 종수	113	147	9	14	3	2	5	3	296
상용DB 서비스 종수	107	131	9	12	2	0	4	2	267
서비스 비율	94.7	89.1	100.0	85.7	66.7	0.0	80.0	66.7	90.2

3) 비영리기관

KCI를 통한 원문서비스에서 분야별 특징은 인문학이 64종 56.6%, 사회과학 분야가 52종, 35.4%로 조사되었다. 연구소 등재지에서 인문사회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문학 분야는 평균인 41.6%보다 높은 것에 비해 사회과학 분야는 KCI를 통한 원문서비스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자연, 공학, 의약학은 1종도 없었으며, 농수해양은 1종, 33.3%, 예술체육이 1종, 11.1%로

조사되어 과학기술 관련 분야와 예술체육 분야의 등재지가 KCI 원문서비스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KCI를 통한 원문서비스 현황

분야 종수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합계
연구소등재지 종수	113	147	9	14	3	2	5	3	296
KCI서비스 종수	64	52	1	5	0	0	0	1	123
서비스 비율	56.6	35.4	11.1	35.7	0.0	0.0	0.0	33.3	41.6%

RISS, NDSL을 통한 원문서비스에서의 분야별 서비스 차이를 조사하였다. 사회과학이 7종이며, 자연 1종, 공학 2종, 의약학 2종, 농수해양, 1종으로 사회분야와 과학기술분야에 편중되어 있었다. 사회과학분야는 RISS를 통해서만 원문서비스를 하며, 과학기술분야는 NDSL을 통해서만 원문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RISS와 NDSL을 통해 서비스중인 등재지의 학문분야가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영리기관을 통해 서비스중인 등재지 중, 사회과학 분야 연구소 등재지 3종은 KCI와 RISS에서 모두 원문서비스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 RISS, NDSL을 통한 원문서비스 현황

분야 종수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합계
연구소등재지 종수	113	147	9	14	3	2	5	3	296
비영리기관 서비스 종수	0	7	0	0	1	2	2	1	13
서비스 비율	0.0	4.8	0.0	0.0	33.3	100.0	40.0	33.3	4.4

3.2.3 원문의 중복 서비스

연구소 등재지 중 2가지 이상의 채널을 통해 원문서비스 중인 등재지가 있는지 조사하였다<표 10>. KCI와 RISS, NDSL은 비영리기관으로 통합하여 정리하였다. 조사결과 상용DB, 홈페이지, 또는 비영리기관 중 1가지 채널로 서비스 중인 연구소 등재지는 40종이었다. 255종은 2가지 이상의 채널을 사용 중인 등재지는 255종으로 조사되었으며, 1종은 국내 서비스 기관은 없었으며,

해외 DB를 통해서만 원문서비스를 하였다. 2가지 이상의 채널을 사용중인 등재지 비율은 86.1%이다.

하나의 채널만을 사용중인 등재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상용DB를 통해서 인문학 6종, 사회과학 11종, 예술체육 2종, 복합학 3종으로 나타났다. 주로 인문사회 분야 연구소 등재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등 과학기술 분야의 등재지는 상용DB만을 통해 서비스 중인 경우가 없었다. 의약학 1종은 비영리기관인 NDSL에서만 서비스 중인 것으로 나타나, 과학기술 분야 등재지가 홈페이지 및 비영리기관을 통한 무상 원문서비스 채널 사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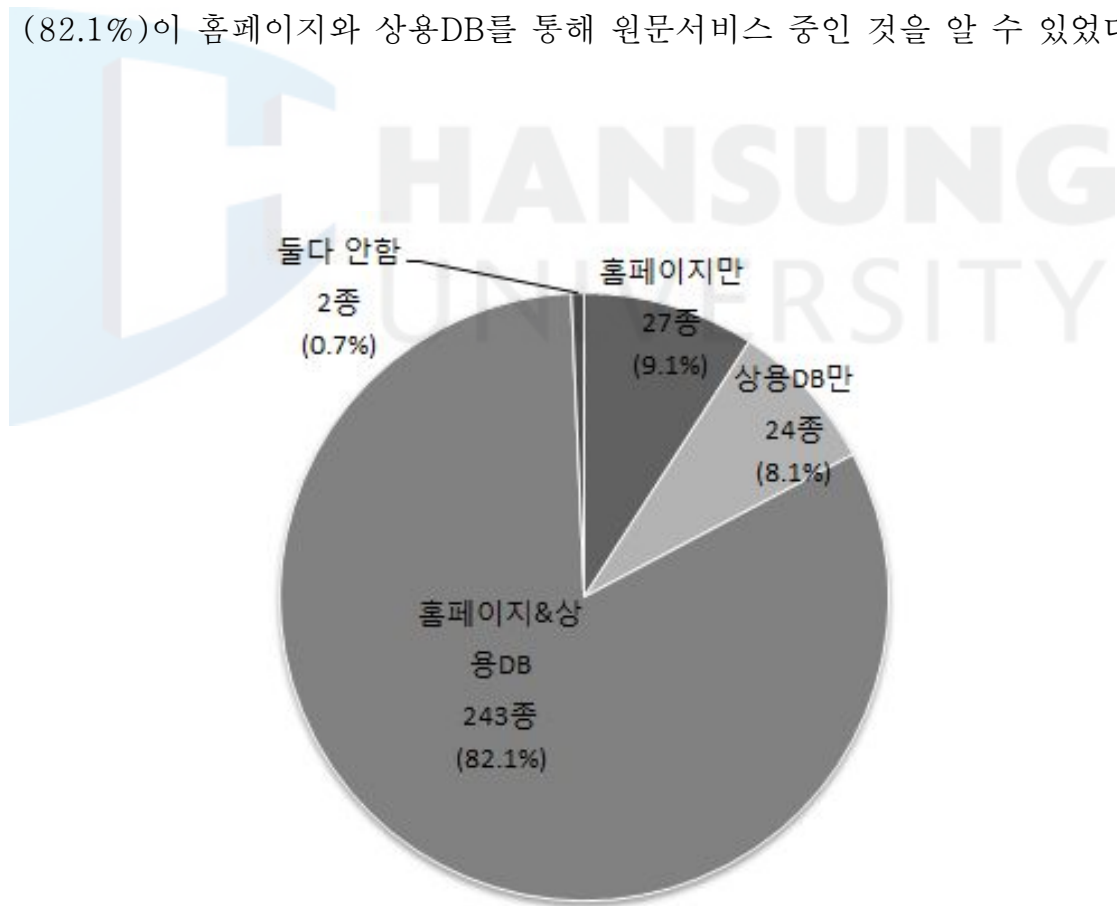
2가지 채널을 한 원문서비스는 주로 상용DB와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등재지 123종이 상용DB와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을 제공하였다. 상용DB와 비영리기관을 통해 서비스 중인 등재지는 14종, 홈페이지와 비영리기관을 통해 원문서비스 중인 등재지는 10종으로, 상용DB와 홈페이지 모두를 통한 서비스에 비해 많지 않았다. 학문분야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구소 등재지 대부분에서 상용DB와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서비스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 원문의 중복 서비스

중복 서비스	서비스채널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합계
단독 서비스 (32종)	홈페이지만 사용	5	10	0	1	1	0	0	0	17
	상용DB만 사용	3	8	1	2	0	0	0	0	14
	비영리기관	0	0	0	0	0	0	1	0	1
2개 채널 (151종)	홈페이지와 상용DB	41	72	7	6	1	0	3	1	131
	상용DB와 비영리기관	6	3	0	1	0	0	0	0	10
	홈페이지와 비영리기관	1	5	0	1	0	2	0	1	10
3개 채널 (112종)	홈페이지, 상용DB, 비영리기관	57	48	1	3	1	0	1	1	112
기타 (1종)	없음	0	1	0	0	0	0	0	0	1
분야별 전체종수		113	147	9	14	3	2	5	3	296

3가지 채널을 통해 서비스 중인 등재지는 108종으로 전체의 42.2%에 해당한다. 학문분야에서는 인문학이 55종으로, 48.7%에 해당하는 인문학 등재지가 3가지 채널을 사용중이었으며, 사회과학이 46종, 31.3%를 나타내고 있어, 인문사회 분야 등재지가 다채널을 통한 원문서비스에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소 등재지의 원문서비스는 2개 이상의 채널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홈페이지와 상용DB를 통한 원문서비스를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홈페이지와 상용DB에서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그림 15>. 홈페이지만을 사용하는 등재지는 27종, 9.1%이며, 상용DB만을 통해 서비스 중인 등재지는 36종 12.2%로 조사되었으며, 홈페이지와 상용DB를 사용하지 않는 등재지는 2종으로 조사되었다. 둘다 사용하지 않는 2종의 등재지는 NDSL와 해외DB를 통해 원문을 제공하였다. 전체 등재지 296종 중 243종 (82.1%)이 홈페이지와 상용DB를 통해 원문서비스 중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4> 홈페이지와 상용DB를 통한 원문서비스

홈페이지와 상용DB에서 원문을 제공하는 연구소 등재지의 분야별 특성을 조사하였다. 상용DB에서만 원문서비스 중인 등재지는 인문학 14종, 사회과학 16종, 예술체육 2종, 복합학 4종으로 조사되었으며, 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은 상용DB를 통해 원문을 제공하는 등재지가 없었다.

<표 10> 홈페이지와 상용DB를 통한 원문서비스

분야 종수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합계
연구소등재지 종수	113	147	9	14	3	2	5	3	296
홈페이지와 상용DB 모두	98	120	8	9	2	0	4	2	243
상용DB에서만	9	11	1	3	0	0	0	0	24
홈페이지에서만	6	15	0	2	1	2	0	1	27
둘다 안함	0	1	0	0	0	0	1	0	2

3.3 연구소 등재지의 저작권 귀속 현황

3.3.1 저작권 귀속 안내

연구소 등재지 홈페이지에서 저작권 관련 정보가 제공되는지 조사하였다.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등재지는 전체 연구소 등재지의 44.3%로 131종이었다.

저작권 귀속에 대한 내용을 등재지 발간규정을 통해 명시한 경우와 논문투고와 관련한 게시판 및 안내 배너, 저작권양도동의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이를 규정, 동의서, 규정과 동의서, 투고 안내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중 규정을 통한 안내방법이 78종, 59.5%로 가장 많았으며, 투고안내가 24종, 18.3%, 저작권양도동의서를 통한 방법이 20종, 15.3%로 나타났다. 규정과 동의서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9종, 6.9%로 많지 않았다. 이를 통해 등재지 홈페이지에서는 주로 규정으로 통해 저작권 내용을 안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술지 관련 규정으로 투고규정, 심사규정, 발간규정, 출판 규정 등이 있

있다.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사용하는 경우 동의서 자체에 귀속주체가 명시되어 있었다. 학술지 안내의 경우에는 논문투고와 관련한 내용이 많았으며, 학술지 투고 안내 정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규정에서 밝히지 않고 안내문만 있는 경우에 학술지 안내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주로 다음 발간예정 학술지의 논문 투고 안내 내용에 저작권 내용을 함께 명시한 경우가 많았다.

<표 11> 홈페이지에 나타난 저작권 안내

안내방법	종수(%)
규정	78(59.5)
동의서	20(15.3)
규정 & 동의서	9(6.9)
학술지 안내	24(18.3)
계	131(100%)

학문분야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 내용을 안내한 방법의 현황은 <표 13>과 같다.

<표 12> 학문분야별 저작권 안내 방법

분야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합계
안내방법	연구소등재지	113	147	9	14	3	2	5	3	296
안내 종수	소계	40	72	2	7	2	1	4	3	131
	규정	32	38	2	4	0	0	0	2	78
	동의서	2	13	0	0	1	0	3	1	20
	규정&동의서	2	5	0	1	0	1	0	0	9
	학술지 안내	4	16	0	2	1	0	1	0	24

저작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세부적인 저작권 내용을 조사하였다. 많이 쓰이는 저작권 관련 명시내용으로는 판권, 저작권, 출판권 등의 포괄적인 내용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을 표현한 경우에는 사용, 복제, 전송, CD제작, 디지털 보관, 디지털 전환, 사이버출판, 전자출판, DB탑재, 학술정보

사이트 원문제공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수익과 관련하여서는 판매수익, 정보공개 수익 등으로 명시한 경우가 있었다.

명시된 저작권 내용을 원문서비스와 관련하여 4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디지털파일 전송과 DB탑재, 디지털 복제 등의 내용은 ‘복제, 전송’으로 하며, 원문서비스에 따른 판매수익과 상업DB를 통한 서비스 내용은 ‘상업적 이용’, 단순히 판권, 저작권, 출판권으로 명시한 경우는 단순표기로 분류하였다. 또한 원문서비스와 관련이 적은 CD제작, 사용 등의 명칭도 단순표기로 분류하였다.

조사결과 단순표기만 있는 경우가 79종, 60.3%로 가장 많으며, ‘복제, 전송’을 표기한 경우는 44종, 33.6%로 나타났으며, 상업적 이용은 2종, 1.5%로 나타났다. 상업적 이용과 복제, 전송 모두를 명시한 경우는 6종, 4.6%로 많지 않았다.

<표 13> 저작권 명시내용

명시 내용	종수(%)
상업적 이용과 복제, 전송 모두	6(4.6)
상업적 이용	2(1.5)
복제, 전송	44(33.6)
판권, 저작권, 출판권의 단순표기	79(60.3)
계	13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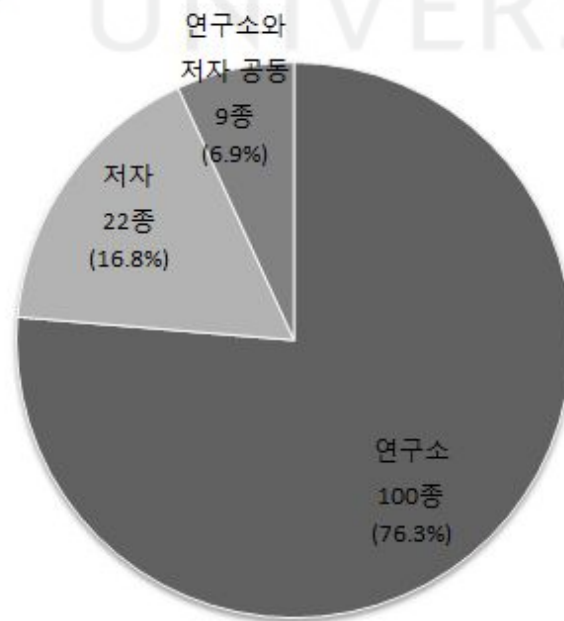
저작권 명시 내용에 있어 학문분야별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단순표기의 경우 학문분야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부분 분야에서 명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적 이용은 인문학 1종, 사회과학 1종으로 인문사회분야에만 명시하였다. 전송에 대한 내용은 사회과학 분야가 72종 중 31종으로 43%를 나타냈으며, 분야별로 가장 높았다. 또한 상업적 이용과 전송 모두를 명시한 경우도 사회과학 분야에서만 6종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법학 분야 등재지가 4종이었다.

<표 14> 저작권 명시 내용의 분야별 차이

분야 저작권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합계
연구소등재지 종수		113	147	9	14	3	2	5	3	296
저작권 내용 명시	소계	40	72	2	7	2	1	4	3	131
	상업적 이용과 전송 모두	0	6	0	0	0	0	0	0	6
	상업적 이용	1	1	0	0	0	0	0	0	2
	전송	9	31	0	1	0	0	2	1	44
	판권, 저작권 등 단순표기	30	34	2	6	2	1	2	2	79

3.3.2 저작권 소유 주체

연구소 등재지의 저작권 내용에서 언급된 소유 주체별 결과는 <그림 14>와 같다.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100종(76.3%)로 가장 많았으며, 저자 22종(16.8%), 공동소유는 9종(6.9%) 많지 않았다. 대부분 연구소가 등재지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저작권 소유 주체별 비율

학문분야별 저작권 소유 주체를 보면 저자가 보유하는 등재지는 사회과학 18종, 인문학, 예술체육, 의약학, 농수해양이 각 1종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분야 등재지에서 저자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저자와 연구소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재지도 사회과학 6종, 인문학 3종으로 인문사회분야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소 외에 저자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학문분야는 사회과학 분야가 두드러졌다. 사회과학 분야중 법률을 연구하는 법학분야 등재지에서 저자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등재지가 10종,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는 등재지가 1종으로 나타났다.

<표 15> 학문분야별 저작권 소유 주체

구분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합계
분야별 전체종수		113	147	9	14	3	2	5	3	296
명시된 종수		40	72	2	7	2	1	4	3	131
저작권 소유 주체	연구소	36	48	1	7	2	1	3	2	100
	저자	1	18	1	0	0	0	1	1	22
	공동	3	6	0	0	0	0	0	0	9

저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등재지가 오픈액세스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8종의 연구소 등재지가 오픈액세스 라이선스를 표기하고 있으며, 이중 6종은 사회과학분야이고, 의약학분야, 농수해양분야가 각 1종으로 오픈액세스 정책을 명시하고 있었다.

오픈액세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등재지는 8종으로 조사되었다. 8종 중 5종은 해외DB업체에서의 오픈액세스 서비스 정책으로, Springer(Green), Taylor&Francis(OPEN SELECT), Wiley(Open Access), SAGE(CCL), Elsevier(Open Access)를 실시하였고, 2종은 별도로 구축한 영문사이트에서 CCL로 표기, 1종은 원문서비스 중인 각 논문의 본문 첫 페이지에서 CCL로 표기하고 있었다.

<표 16> 학문분야별 오픈엑세스 정책 명시 현황

구분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합계
연구소등재지 종수	113	147	9	14	3	2	5	3	296
오픈엑세스 명시 종수	0	6	0	0	0	0	1	1	8

연구소 등재지 원문서비스에 대한 저작권양도동의서 사용은 등재지 홈페이지에서 동의서 양식이 있거나 학술지 관련 규정에서 동의서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사용 유무를 판단하였다.

홈페이지에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언급한 학술지는 총 30종이다. 분야별 특성은 사회과학 분야가 19종이었으며, 인문학 4종, 의약학이 3종이며, 예술체육은 조사결과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서 사용은 의약학 분야가 연구소 등재지 전체에서 5종이며, 4종이 저작권 명시가 되었고, 이중 3종이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저작권 표기와 마찬가지로 사회과학 분야 학술지에서 저작권양도동의서 사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7> 학문분야별 저작권양도동의서 사용현황

구분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합계
연구소등재지 종수	113	147	9	14	3	2	5	3	296
저작권이용 동의서 사용	4	19	0	1	1	1	3	1	30

3.4 OAS를 참조한 연구소 등재지의 개방 수준

OAS에서 제시한 이용자 권한에서 연구소 등재지의 개방정도를 분석하였다. 등재지의 원문제공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을 제공하는 등재지는 270종이며, 이중 227종은 회원가입이나 별도의 조건 없이 원문 이용이 가능했다. 이와는 달리 회원가입 및 이용료가 필요한 경우는 43종이었다.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서비스만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비영리기관을 통한 원문서비스

중에는 KCI를 통해 원문을 제공하는 등재지가 많았다. 이 또한 별다른 조건 없이 이용자가 원문을 이용할 수 있어, KCI를 통한 원문제공은 이용자 권한 측면에서 개방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연구소 등재지는 상용DB를 통한 유료 원문서비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용DB는 기관 또는 개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는 가입조건도 필요하며, 이용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용자 권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개방 정도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연구소 등재지는 원문서비스 방법에 따라 다양한 개방 수준을 보여주게 됨을 알 수 있다.

저작권은 오픈엑세스 개방정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며, 재사용 권한, 저작권, 저자의 게시 권한의 3가지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는 저작의 재사용 권한과 저자게시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가 드물어, 어느 정도의 개방 수준인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 홈페이지를 통한 저작권 귀속 조사에서 저작권을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100종 (76.3%)으로 조사되었으며,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22종 (16.8%)이었다. 이는 연구소가 상용DB를 통한 배포방식으로 인해 저작권을 연구소에 양도하기 때문이다. 셀프 아카이빙 및 CCL 라이선스를 명시한 경우는 8종에 불과하였다. 이를 통해 저작권 요소에서는 낮은 수준의 개방 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연구소 학술지 관련 규정에서 자동 게시를 위한 명시가 구체적이지 않아, 자동 게시에 대한 개방 수준도 분석하지 못하였다.

기계적 가독성을 위해 원문, 메타데이터, 인용데이터, 부록 등의 공개적인 지침이 있어야 하나, 공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도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다만 홈페이지에서 PDF 포맷의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상용DB에서는 해당 등재지의 메타데이터, 서지사항, 인용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연구소 등재지의 개방정도는 OAS의 6가지 요소 중 이용자 권한의 개방정도만이 높은 수준이었다. 저자가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고 연구소에 저작권을 양도함으로써 저작권 요소는 대단히 낮은 수준의 개방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연구소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저자의 재사용과 저자의 게시 권한, 기계적 가독성과 관련된 정책이 수립되고 공개되어 있어야 하나, 관련 정책이 있다하더라도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따라

서 OAS의 6가지 요소에 연구소 등재지의 원문서비스 관련 내용을 완전히 대응할 수는 없었으나, 현재의 연구소 등재지의 원문서비스는 OAS의 기준에서 개방 정도가 상당히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3.5 원문서비스 현황 조사결과 요약

연구소 등재지 296종 중에서 270종(91.2%)은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중 12종을 제외한 258종의 등재지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었다. 한편, 연구소 등재지 중 267종(90.2%)은 상용DB를 통해 유료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었다. 즉, 대부분의 연구소 등재지는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 원문제공과 상용DB를 통한 유료 원문제공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

연구소 등재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용DB인 KISS, DBpia, 교보스콜라, eArticle, 뉴논문에서 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KISS를 통해 제공되는 등재지는 149종(50.3%)으로 전체 연구소 등재지의 절반이며, 그에 비해 DBpia는 100종(33.8%)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세 개의 DB를 통해 제공되는 등재지는 19.2%로 많지 않았다. KISS와 DBpia에서 제공되는 연구소 등재지는 224종(75.7%)이며, 그 이유는 KISS, DBpia, 양 DB에서 동시에 원문을 제공하는 등재지가 25종(8.4%)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영리기관을 통하여 무료로 원문이 제공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한 결과, KCI를 통해서 원문이 제공되는 등재지가 123종(41.6%)으로, RISS와 NDSL을 통해 원문서비스 중인 등재지 13종보다 훨씬 많았다. 이를 통해 홈페이지, 상용DB와 KCI가 연구소 등재지의 보편적인 원문 채널임을 알 수 있었으며, 상용DB중에서는 KISS와 DBpia를 통한 원문서비스가 많았다.

한국연구재단이 구분하고 있는 학문분야에 따라 원문서비스 제공 채널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홈페이지와 상용DB를 통한 원문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KCI를 통한 원문서비스는 인문분야 113종 중 64종(56.6%)가 시행중인 것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서비스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인문분야가 한국연구재단 주도의 원문 공개 서비스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ISS에서 무료로 원문을 제공하는 연구소 등재지는 사회과학 분야 등재지 7종 이었다. NDSL에서는 자연, 공학, 농수해양의 과학기술분야 등재지 8종 중 6종(75.0%)의 원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과학기술분야의 상당수 등재지가 NDSL을 통한 원문서비스를 하고 있었으나 종수 자체는 많지 않았다. 이는 연구소 등재지의 대부분을 인문사회 분야 등재지가 차지하여 과학기술분야 등재지 종수 자체가 많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2가지 이상의 채널을 통해 원문서비스 중인 등재지는 263종(88.9%)이었으며, 상용DB와 홈페이지를 모두 사용하여 원문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296종 중 231종(78.0%)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3가지 채널을 통해 원문서비스 중인 등재지는 112종으로, 전체의 37.8%가 이에 해당하여, 연구소 등재지의 대부분이 여러 채널을 통한 원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다. 하나의 채널만을 사용하여 원문서비스 중인 등재지는 32종(10.8%)으로 적었다. 이를 통해 연구소 등재지의 원문서비스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원문을 제공함으로써 이용확대를 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보인다.

연구소 등재지의 저작권 관련에서, 저작권 관련 규정이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등재지는 78종(59.3%)으로 조사되었다. 저작권의 표기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판권, 저작권 등으로 단순표기한 경우가 79종(60.3%)으로 가장 많았다. 저작권양도동의서는 등재지 30종이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동의서 자체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꺼리거나, 날인을 위해 종이형태의 동의서를 사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필요가 없어 적은 숫자가 조사된 것으로 여겨진다.

저작권 소유 주체별 결과는 연구소가 보유한 경우가 131종 중 100종(7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저자가 보유한 경우는 22종(16.8%)이며, 공동소유는 9종(6.9%)으로 조사되었다. 학문분야별로는 저자가 보유한 경우 사회과학 분야가 22종 중 18종이었으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서도 9종 중 6종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과학 분야 중 법학 분야 등재지에서 저자가 보유하는 경우가 10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저작권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 등재지 중 오픈액세스 출판을 하고 있는 경우는 8종(2.7%)으로 나

타나 오픈엑세스 출판을 실시하고 있는 등재지가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문분야별로는 사회과학 6종, 의약학 1종, 농수해양 1종으로 조사되었다. 8 오픈엑세스 명시방법은 해외 출판사의 오픈엑세스 정책을 따르는 경우가 5종이었으며, 2종은 별도로 구축한 영문사이트에서 CCL로 표기 하였고, 1종은 논문의 첫 페이지에서 CCL로 명시하였다.



IV. 연구소 등재지 원문서비스 방법 및 저작권 처리에 대한 편집자의 인식

4.1 조사방법 및 내용

등재지의 원문서비스 방법은 홈페이지와 온라인 접속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원문서비스방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원문서비스 선택 이유와 만족도, 연구소 운영과 정책, 저작권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소 등재지 296종의 편집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편집자는 현재 각 연구소 등재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학술지 발간과 정책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책이라 여겨진다.

설문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2014년 11월 11일까지 설문참여 요청을 위해 연구소 이메일에 설문취지와 설문방법을 발송하였으며, 설문사이트 서베이 링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296부 중 92부로 31%의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요청 전에 2명의 연구소 등재지 편집자를 대상으로 예비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설문내용 수정의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6개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부설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부설연구소 재정 형태와 학술지 발간시 대학의 직간접 지원 내용을 조사하였다. 둘째,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저자가 부담하는 논문처리 비용(APC)을 조사하였다. 셋째, 현재 학술지 원문서비스의 방법과 선택기준,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편한 점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넷째, 오픈액세스의 지식 정도와 부설연구소 등재지 편집위원회에서 오픈액세스 시행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조사하였다. 다섯째, 저작권 귀속과 저작권 소유 주체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가 학술지 업무와 관련된 역할과 경력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조사영역에 따라 빈도분석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원문서비스 선택기준, 오픈액세스의 지식정도과 선호도, 저작권 소유 주체에서

학문분야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평균비교와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으며 $p < .05$ 수준에서 차이 검증이 이루어졌다.

<표 18> 편집자 대상 설문내용

조사영역	항목	세부항목	문항수
부설연구소 운영	학술지 학문분야	●학술지 학문분야	1
	대학의 지원 내용	●행정인력(간사, 조교) 지원 ●인건비 외 지원	4
학술지 발간	투고자격	●연회비 유무 ●가입비 유무	2
	심사비	●논문 투고시 비용	1
	게재료	●논문 게재시 비용	3
원문서비스	원문서비스 방법과 기준	●원문서비스 방법 ●원문서비스 선택기준 ●원문서비스 불편사항 ●연구자로서의 원문서비스	12
	상용DB를 통한 수익	●연간 수익 ●수익의 재정 기여도	2
오픈엑세스	오픈엑세스 지식 정도	●오픈엑세스 지식정도 ●이용자 입장에서의 만족도	2
	오픈엑세스 논의 경험	●오픈엑세스 시행 논의 유무 ●시행시 예상 문제점 ●적합한 오픈엑세스 시행기관	4
저작권	저작권 소유 주체	●저작권 안내 ●저작권 소유 주체 ●이용허락 동의서 사용	3
	저작권 귀속주체 선호이유	●선호하는 저작권 소유 주체와 이유	2
응답자 일반내용	대학 유형	●국립대, 공립대, 사립대	1
	편집자 관련 사항	●편집위원장 임기 ●학술지와 관련한 역할 ●학술지 관련 경력	3
	응답자 전공	●전공분야	1
합계			41

4.2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학문 분야별 응답률을 보면 전체 조사대상 등재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분야의 응답률이 30명(20.4%)으로 낮았다. 인문분야의 응답이 44명(38.9%)으로 사회분야에 비해 상대적인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19> 학문분야별 응답자수

학문분야	응답자수(분야별 응답률)
인문학	44(38.9%)
사회과학	30(20.4%)
예술체육	3(33.3%)
복합학	8(57.1%)
자연	2(66.7%)
공학	1(50.0%)
의약학	2(40.0%)
농수해양	2(66.7%)
계	92(31.1%)

전체 응답자 중에서 사립대에 속한 응답자는 77.2%(71명)이며, 국립대가 19.6%(18명), 공립대가 3.3%(3명)으로 사립대 응답자가 대다수이다. 공립대는 모두 서울시립대에 속한 연구소이며, 3명이 응답하였다.

<표 20> 응답자의 소속 대학 유형

대학 유형	응답자수(%)
사립대	71(77.2%)
국립대	18(19.6%)
공립대	3(3.3%)
계	92(100.0%)

학술지 관련 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편집위원장의 임기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9%인 68명이 2년이라고 응답했다. 제한이 없다는 대답도 14.1%(13명)이었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편집위원장의 임기 관련 배점은 2년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표 21> 편집위원장 임기

편집위원장 임기	응답자수 (%)
1년	4(4.3%)
2년	68(73.9%)
3년	7(7.6%)
제한없음	13(14.1)
계	92(100.0%)

응답자가 현재 소속된 연구소에서의 직책을 조사한 결과 편집간사가 가장 많은 59명(64.1%)였으며, 편집위원장(편집위원)이 직접 답변한 경우는 10명(10.9%)로 많지 않았다. 편집이사는 5명(5.4%)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답한 18명의 응답내용을 분류해보면, Associate Editor가 1명 있었고, 연구원이 7명, 연구소 소속 조교가 5명, 직원이 4명, 편집팀장이 1명으로 응답하였다.

<표 22> 응답자의 학술지 관련 직책

직책	응답자수 (%)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0(10.9%)
편집이사	5(5.4%)
편집간사	59(64.1)
기타	18(19.6%)
계	92(100.0%)

응답자가 현재 직책에서의 경력을 조사한 결과 1년에서 2년 미만이 가장 많은 28명(30.4%)이었다. 4년 이상이 21명(22.8%)으로 나타나 일부 담당자는 오랜 기간 학술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은 16명으로(17.4%) 많지 않았다.

발행 등재지와는 별개로 한국연구재단의 분류기준에 따른 응답자의 전공 학문분야를 조사한 결과 인문분야가 가장 많은 46명(50.0%)이었고, 사회분야가 35명(38.0%)이었다. 이는 해당 등재지 분야와 동일한 학문분야 전공자가 학술지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다만, 예술체육 분야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술지는 3종이나 전공한 인력이

담당자로 있는 경우는 1명으로, 타 분야 전공자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응답자의 전공분야

학문분야	응답자수(%)
인문	46(50.0%)
사회	35(38.0%)
예술체육	1(1.1%)
복합학	2(2.2%)
자연	2(2.2%)
공학	2(2.2%)
의약학	1(1.1%)
농수해양	3(3.3%)
계	92(100.0%)

4.3 연구소 등재지 발간 현황

4.3.1 학술지 발행 관련 비용

1) 학술지 발간 재원

일반적으로 국내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는 논문투고시 연구자에게 심사비나 게재료를 받거나 한국연구재단 등의 외부지원을 통해 발간된다.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등재지는 이와는 달리 소속대학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학으로부터 재정지원으로 등재지를 발간한다는 응답자가 42명(45.7%)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연구소 자체 예산만으로 등재지를 발간한다는 응답자는 5명(5.4%)로 매우 적었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의 재정지원과 연구소 자체 모두를 사용하여 발간한다는 응답자가 35명(38.0%)로 나타났다. 연구소 자체 예산으로는 저작권 대여로 인한 수입과 각종 세미나 강습료, 발간도서 판매수익, 연구소 학술기금 등이 있다.

기타에 응답한 경우, 정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자가 7명이었으며, 대형로펌이나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자가 3명이 있었

다. 대부분의 연구소에서 자체 예산으로만 발간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대학의 지원으로 등재지를 발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4> 학술지 발간을 위한 재원

학술지 출판 재원	응답자수(%)
대학의 재정	42(45.7%)
연구소 자체	5(5.4%)
대학의 재정지원과 연구소 자체예산	35(38.0%)
기타	10(10.9%)
계	92(100%)

2) 전담인력 및 인건비

연구소 등재지 발간을 위한 전담인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직원 및 간사와 조교가 모두 있다는 응답이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원 및 간사만 있는 경우는 29명(31.5%)으로 나타났으며, 조교만 있는 경우는 24명(26.1%)으로 조사되었다. 둘다 없다는 곳은 2건만 있었다. 결과적으로 응답자 중 97.8%가 등재지 발간을 위한 인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5> 학술지 발간을 위한 전담인력

지원 인력	응답자수(%)
풀타임 직원 및 간사 & 조교	37(40.2%)
풀타임 직원 및 간사만 있음	29(31.5%)
조교만 있음	24(26.1%)
둘다 없음	2(2.2%)
계	92(100%)

학술지 발간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방식을 조사하였다. 대학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자수가 67종(72.8%)로 가장 많았다. 기타 응답으로는 연구과제 연구자가 담당한다는 응답이 1건, 지원금 및 연구소 사업비에서 지급한다는 응답이 2건, 외부지원과 한국연구재단이 각 1건으로 나타났다.

<표 26> 학술지 발간 전담 인력의 인건비 지급

인건비 지급	응답자수(%)
대학에서 지급	46(50.0%)
대학지원과 연구소 예산	21(22.8%)
연구소에서 지급	20(21.7%)
기타	5(5.4%)
계	92(100%)

등재지 발간시 구체적 지원 사항을 조사하였다. <표 27>에서 연구소 재정에 대해 부분 또는 전체 재정에 대학의 지원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7명이었으며, 대학의 지원 내용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각 항목별 어떠한 대학지원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대학에서 연구소 공간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가 74명(96.1%)으로 대부분 연구소가 대학의 연구 공간 지원이 있었다. 등재지 발간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쇄비를 대학에서 지원받고 있다는 64명(83.1%)이 응답이 하였다. 학술지 1,000부를 종이 인쇄물로 제작한다고 가정하면 인쇄비는 700만원 내외가 되며 이는 전체 학술지 발간비용에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한다. 기자재 및 컴퓨터를 지원 받고 있다는 응답은 49명(63.6%)로 조사되었다. 홈페이지 구축과 유지에서도 대학의 지원을 받는 곳이 48명(52.2%)으로 절반을 넘고 있다. 대학 지원이 없다는 응답은 3명이었다.

<표 27 > 인건비 외 대학지원내용

대학지원내용	응답자수(%)
연구소 공간 지원	74(96.1%)
인쇄비 지원	64(83.1%)
기자재 및 컴퓨터 지원	49(63.6%)
홈페이지 구축	48(62.3%)
홈페이지 유지(웹호스팅)	48(62.3%)
전산 소모품, 사무용품	44(57.1%)
우편비 지원	40(51.9%)
없음	3(3.9%)
기타	7(9.1%)

기타응답에서도 free Access 비용지원, 지원예산에서 자체적으로, 간접비 사용과 운영비, 관련 예산을 유동적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free Access와 간접비, 운영비 중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도 연구소 자체 재정이 아닌 대학의 지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3.2 논문처리비용

1) 투고자격

연구소 등재지에 투고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가입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가입비가 없다는 응답이 70명(76.1%)이었으며,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2명(23.9%)으로 많지 않았다.

<표 28> 가입비 유무

가입비 유무	응답자수(%)
있다	22(23.9%)
없다	70(76.1%)
계	92(100%)

연구소 소속 회원에 대한 연회비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88명(95.7%)이 없다고 하였으며, 있더라도 5만원 이하가 4명(4.3%)으로 조사되었다. <표 28>에서 가입비가 있다는 응답이 22명이었는데 비해 연회비는 4명이 있다고 하여, 회원가입시 가입비가 있더라도 회비는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회의 경우 운영을 위해 회원으로부터 연회비를 받는 것에 비해 연구소는 대학의 지원으로 연회비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9> 회원의 연회비

연회비	응답자수(%)
없다	88(95.7%)
5만원 이하	4(4.3%)
계	92(100%)

2) 심사비

연구소 등재지에 논문투고 시 심사비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심사비가 없는 경우가 36명(39.1%)로 가장 많았으며,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6명(60.9%)이었다. 심사비가 있는 경우, 3만원 이하는 9명(9.8%)이었으며, 4만원에서 6만원은 29명(31.5%)이었다. 7만원에서 10만원은 15명(16.3%)이었으며, 10만원 이상은 3명(3.3%)이었다.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계속 평가에서 한 논문당 2명 이상이 최소 심사기준이다. 연구소는 심사비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연구소 자체 활동 또는 대학이나 외부기관지원으로부터 심사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심사비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6명, 3만원 이하의 심사비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9명으로, 심사비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학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30> 심사비

심사비	응답자수(%)
없다	36(39.1%)
3만원 이하	9(9.8%)
4만원 ~ 6만원	29(31.5%)
7만원 ~ 10만원	15(16.3%)
10만원 이상	3(3.3%)
계	92(100%)

연구소 등재지 투고에 있어 정회원에게 받는 게재료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게재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47명(51.1%)으로 가장 많았다.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가 6명(6.5%)이었으며, 11만원에서 20만원의 게재료가 있는 경우는 26명(28.3%)이며, 21만원에서 30만원은 12명(13.0%)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30만원 이상은 1명(1.1%)이 응답하였다.

등재지 출판시 게재료가 출판비용으로 사용되는데, 게재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도 대학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 정회원의 논문게재료

게재료	응답자수(%)
없다	47(51.1%)
10만원 이하	6(6.5%)
11만원 ~ 20만원	26(28.3%)
21만원 ~ 30만원	12(13.0%)
30만원 이상	1(1.1%)
계	92(100%)

특별히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사업에 따른 결과물이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기금을 지원받아 논문을 투고할 시에 특별 게재료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없다는 응답한 경우가 36명(39.1%)이었다. 특별 게재료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3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47명(51.1%)으로 가장 많았으며, 31만원에서 50만원의 게재료가 있는 경우는 9명(9.8%)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없거나 있더라도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연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회원의 논문게재료<표 31>에서 44명이 30만원 이하의 게재료를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나 <표 32>에서 특별히 연구비 수혜가 있는 논문의 게재료가 있다는 응답이 47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47명중 일부는 연구비 수혜가 있는 논문과 일반 논문의 게재료가 동일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표 31>에서 30만원 이상인 경우 1명이었으나, <표 32>에서 30만원이 초과한 경우가 9명이 조사되어, 일부 등재지는 특별히 연구비 수혜가 있는 논문의 경우, 일반논문보다 높은 금액의 특별 게재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연구비 수혜가 있는 논문의 게재료

게재료	응답자수(%)
없다	36(39.1%)
30만원 이하	47(51.1%)
31만원 ~ 50만원	9(9.8%)
계	92(100%)

4.4 등재지의 원문서비스 방법

4.4.1 방법과 기준

1) 서비스 방법

연구소 등재지가 어디에서 원문서비스 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원문서비스 방법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 모두를 응답하도록 질문하였다. 그 결과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4명(91.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상용DB에서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0명(76.1%)이었다. KCI를 통해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8명(63.0%)이었다. 도서관을 통한 원문서비스는 31명(33.7%)이 응답하였으며, 비영리기관을 통한 서비스 한다는 응답자는 8명(8.7%)으로 조사되었다.

<표 33> 원문서비스 방법(복수응답)

원문서비스 방법	응답자수(%)
홈페이지	84(91.3%)
상용DB	70(76.1%)
한국연구재단	58(63.0%)
대학도서관	31(33.7%)
비영리기관	8(8.7%)

학술지 원문서비스 방법에서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원문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92명중 88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응답자의 76명, 86.4%가 학술지 수록 논문의 노출과 인용확대를 원문서비스를 하는 이유로 응답하였다. 그 다음 많은 응답으로는 채널마다 부족함이 있다고 하였으며, 수익 때문에 원문서비스를 선택한다는 응답은 2명에 불과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소 등재지의 주된 원문서비스 선택 이유는 ‘학술지 수록 논문의 노출과 인용확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타의견으로는 이용자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한 무료열람과 각 채널의

부족함과 수익이 원문서비스 선택이유라는 응답이 있었다.

<표 34> 2가지 이상의 채널의 원문서비스 요인

요인	응답자수(%)
학술지 수록 논문의 노출과 인용확대	76(86.4%)
각 채널마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	7(8.0%)
학술지 출판비용 확보를 위한 이익창출	2(2.3%)
기타	3(3.4%)
계	88(100%)

2) 선택기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문서비스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학술지 수록 논문의 노출과 인용확대’라는 응답이 46명, 50.0%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라고 응답하였다.(43.5%)

2015년 기준으로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원문서비스와 관련한 평가항목으로 “학술지 및 수록 논문의 온라인 접근성”(7점)이 있다. 평가기준은 “원문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창간호부터 무상으로 제공될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KCI에 원문공개동의서를 제출하여 로그인 없이 등재지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무상으로 서비스할 경우와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술지 수록논문의 노출과 인용확대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계속 평가가 현재 원문서비스 선택방법의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이는 학술정보 본연의 목적과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라는 환경적인 요인이 원문서비스 선택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학술지 원문서비스의 선택 기준

선택 기준	응답자수(%)
학술지 수록 논문의 노출과 인용확대	46(50.0%)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40(43.5%)
대부분 연구소에서 하기 때문	5(5.4%)
계	92(100%)

4.4.2 원문서비스 방법에 따른 선택이유와 불편사항

1) 홈페이지

연구소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문서비스에 대한 선택 이유와 불편사항을 조사하였으며, 개별 원문서비스 방법의 선택 이유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서비스 이유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원문서비스라고 응답한 경우가 26명(31.0%)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4명(28.6%)이었으며 논문투고에서 원문서비스까지의 편의성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0명(23.8%)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출판사에서 학술지 사이트를 관리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창간호부터 무료서비스를 하기위해” 라는 기타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서비스를 하더라도 창간호부터 원문 확인이 가능할 경우의 배점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6> 홈페이지를 이용한 원문서비스의 선택요인

선택이유	응답자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원문서비스	26(31.0%)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24(28.6%)
논문투고에서 원문서비스까지의 일원화	20(23.8%)
연구소 의견반영 및 내용수정이 용이	12(14.3%)
학술저작물의 유료화 반대	0(0%)
기타	2(2.4%)
계	92(100%)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서비스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인지도라고 응답하였으며 과반수(43명, 51.2%)에 달한다. 다른 학술지와 통합검색 부재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17명(20.2%)에 달해 한 사이트에서 유관분야의 여러 논문을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선택기준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대학의 홈페이지는 접속자 수가 많지 않아 수록논문의 노출과 인용확대를 바라는 연구소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불편사항이라 할 수 있다.

불편한 점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0.2%정도로 나타났다.

<표 37> 홈페이지를 이용한 원문서비스에서의 문제점

문제점	응답자수(%)
낮은 인지도	43(51.2%)
타 학술지 통합검색 부재	17(20.2%)
불편한 점이 없음	17(20.2%)
사이트 불안정 및 관리 불편	7(8.3%)
기타	0(0%)
계	84(100%)

2) 상용DB

상용DB를 통한 원문서비스를 한다고 응답한 70명에게 상용DB 선택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학술지 수록 논문의 노출과 인용확대가 가장 많은 응답자수인 40명(57.1%)이었으며, 검색의 편의와 시스템 신뢰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7명(24.3%)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상용DB를 통한 원문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발생수익을 목적으로 상용DB를 통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9명(12.9%)로 조사되었다. 유관 전공분야 논문이 많다고 응답한 경우는 2명(2.9%)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한국학술정보에서 학술지 편집 및 인쇄 관리, 한국연구재단 기준에 제일 적합한 시스템 제공으로 나타나 상용DB의 부가서비스와 시스템의 신뢰도에 따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상용DB를 통한 원문서비스 선택요인

선택이유	응답자수(%)
학술지 수록 논문의 노출과 인용확대	40(57.1%)
검색의 편의와 시스템 신뢰성이 높음	17(24.3%)
발생수익이 연구소 재정에 기여	9(12.9%)
유관 전공분야 논문이 많음	2(2.9%)
기타	2(2.9%)
계	70(100%)

상용DB를 통한 원문서비스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서 불편한 점이 없다는 응답이 33명(47.1%)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는 저작권 수입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22명(31.4%)으로 나타났다. 업체와의 수익비율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7명(10.0%)으로, 등재지 편집자들은 상용DB와의 원문 제공 계약시 상용DB에 더 유리한 수익배분이 있다고 여긴다. 저작권 수입의 정산에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5명(7.1%)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노출에 제한이 있다’, ‘의견이 바로 수정되지 않고, 관리가 어렵다’, ‘해당 DB업체에 등록시켰음에도 검색되지 않는 논문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39> 상용DB를 통한 원문서비스의 문제점

문제점	응답자수(%)
발생하는 저작권 수입이 너무 적음	22(31.4%)
업체와 연구소 수익비율의 불합리	7(10.0%)
저작권 정산의 신뢰성 부족	5(7.1%)
불편한 점이 없다	33(47.1%)
기타	3(4.3%)
계	70(100%)

상용DB를 통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조사한 결과, 수입이 없는 경우가 11명(15.7%)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이 46명(65.7%) 응답하여 가장 응답자수가 많았다.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은 10명(14.3%)이 있었으며, 1,0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수는 3명(4.3%)으로 소수에 불과하였다.

<표 40> 상용DB를 통한 수익

발생수익	응답자수(%)
없음	11(15.7%)
100만원 미만	46(65.7%)
100만원 ~ 500만원 미만	10(14.3%)
500만원 ~ 1,000만원 미만	3(4.3%)
1,000만원 이상	0(0.0%)
계	70(100%)

그럼에도 상용DB를 통한 원문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학술지 수록 논문의 노출확대와 인용확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연구소에서 상용DB를 통한 수익이 연구소 재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재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12명(17.1%)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43명(61.4%)로 조사되었다. 약간의 도움이 된다는 13명(18.6%)이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2명(2.9%)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연구소들이 상용DB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약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상용DB를 통한 수익이 500만원 이상인 연구소는 3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약간의 도움이 되거나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연구소가 15개인 것을 볼 때 연구소 재정규모가 적을수록 상업DB를 통한 수익의 재정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41> 상용DB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기여도

수익의 기여도	응답자수(%)
전혀 도움이 안된다.	12(17.1%)
도움이 안된다	43(61.4%)
도움이 된다	13(18.6%)
상당히 도움이 된다	2(2.9%)
계	70(100%)

3)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을 통한 원문서비스의 선택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15명(48.4%)이 대학 내 다양한 학술정보 통합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두 번째 많은 응답은 다양한 채널의 원문서비스(10명, 32.3%)이었다. 세 번째 많은 응답은 논문DB 구축 및 관리비용 절감이 5명(16.1%)로 조사되었다. 대학 내 이용자가 많다는 응답은 1명(3.2%)으로 많지 않았다.

대학은 내부의 다양한 기관에서 학술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학술정보를 도서관 및 리포지터리를 통해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연구소 입장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원문서비스와 관리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이 있

다.

<표 42> 대학도서관을 통한 원문서비스 선택요인

선택이유	응답자수(%)
대학 내 다양한 학술정보 통합	15(48.4%)
다양한 채널로 원문서비스	10(32.3%)
논문DB 구축 및 관리비용 절감	5(16.1%)
대학 내 이용자가 많아서	1(3.2%)
기타	0(0%)
계	31(100%)

대학도서관을 통한 원문서비스에서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불편한 점이 없는 경우가 14명(45.2%)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 많은 응답으로는 타 학술지 통합검색 부재(8명, 25.8%)로 나타나, 다른 대학도서관과의 연계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연구소 입장에서 상당히 만족할만한 원문서비스 방법이라 하겠다. 인지도가 낮다는 응답은 6명(19.4%)이었고, 연구소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응답이 3명(9.7%) 있었다.

<표 43> 대학도서관을 통한 원문서비스의 문제점

문제점	응답자수(%)
타 학술지 통합검색 부재	8(25.8%)
낮은 인지도	6(19.4%)
연구소 의견 반영이 어려움	3(9.7%)
불편한 점이 없음	14(45.2%)
계	31(100%)

4) 비영기관

비영리기관을 통한 원문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우, 채널 선택의 가장 주된 이유는 다양한 채널로 논문서비스를 하기 위함이라는 응답이 6명(75.0%)이었으며, 인지도가 높은 기관이라는 응답이 2명(25.0%)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선택 이유로 조사되었다. NDSL의 경우 주로 자연, 공학, 의학 분야의 학술지가 많이 서비스되고 있으며, RISS의 경우 인문사회분야의 원문이 주로 서비스 되

고 있었다.

<표 44> 비영리기관을 통한 원문서비스 선택요인

선택이유	응답자수(%)
다양한 채널로 논문서비스를 하기 위해	6(75.0%)
인지도가 높은 기관이므로	2(25.0%)
학술저작물의 유료화 반대	0(0.0%)
유관 전공분야 논문이 많아서	0(0.0%)
계	8(100%)

비영리기관을 통한 원문서비스하고 있는 등재지에서의 문제점은 연구소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응답이 4명(50.0%)이 있었으며, 불편한 점이 없다는 응답이 4명(50.0%)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영리기관의 시스템이 안정적이며, 이용하기는 편리하지만, 비영리기관이 대학과 관련이 낮은 외부 기관으로 개별 부설연구소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시스템 자체의 신뢰도와 이용에는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비영리기관을 통한 원문서비스에서의 문제점

문제점	응답자수(%)
연구소 의견 반영이 어려움	4(50.0%)
일부 학문분야에 편중	0(0.0%)
속도 저하, 이용불편	0(0.0%)
불편한 점이 없음	4(50.0%)
계	8(100%)

4.5 오픈엑세스에 대한 인식

4.5.1 오픈엑세스에 대한 인지정도와 논의 경험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오픈엑세스 출판은 학술정보의 배포 및 이용에 있어, 연구자와 이용자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픈엑세스 출판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편집자의 의지와 오픈엑세스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런 이유에서 학술지 편집자에게 오픈엑세스에 대한 지식정도와 오픈엑세스 출판물 하였을 때의 문제점, 만족도 등을 편집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에서 설문하였다.

설문에 앞서 오픈엑세스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학술논문을 전세계 이용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어떠한 허락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무료로 이용하도록 출판하는 것임)을 말한다”라고 안내 한 후에 설문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19명(20.7%)이며,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 28명(30.4%)로 나타나 모르는 경우가 51.1%로 조사되었다. 조금 안다고 응답한 경우는 35명(38.0%)이며, 매우 잘 알고 있다는 10(10.9%)로 나타났다.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47명이며, 안다고 응답한 경우가 45명으로, 모른다는 경우가 약간 더 많았다.

<표 46> 편집자의 오픈엑세스 지식정도

오픈엑세스 지식	응답자수(%)
전혀 모른다	19(20.7%)
모른다	28(30.4%)
안다	35(38.0%)
매우 잘 안다	10(10.9%)
계	92(100%)

연구소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오픈엑세스 출판논의 경험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오픈엑세스 출판논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2명(45.7%)이며, 논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50명(54.3%)로 나타났다. 오픈엑세스 출판 논의 경험이 없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 이는 학술지의 정책과 발행 계획 등을 결정하는 편집위원회의 위원들이 연구자이므로, 오픈엑세스 지식정도를 묻는 항목에서 모른다고와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47명(51.1%)으로 편집위원회 안건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관심이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7> 오픈엑세스 출판에 대한 논의 경험

오픈엑세스 논의 유무	응답자수(%)
있다	42(45.7%)
없다	50(54.3%)
계	92(100%)

오픈엑세스 출판을 검토한 적이 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상용DB를 통해 얻어지는 수입이 없어질 것을 가장 우려한다는 응답이 12명(28.6%)이며, 국내사례가 적다는 응답이 12명(28.6%)로 가장 많았다. 상용DB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연구소 재정에 기여하는 정도는 크지 않았으나, 오픈엑세스 출판으로 인해 수익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회원반대라고 응답한 경우는 5명(11.9%)로 나타났으며, 이는 응답자의 오픈엑세스에 대한 지식조사에서 모른다는 응답이 알고 있다라는 응답보다 더 많은 것에 기인하여, 연구소 소속 연구자들도 오픈엑세스에 대한 지식이 부족으로 인해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타의견으로는 편집위원의 인식부족, 우려사항이 없음, 저작권자의 허락이 어려움, 서비스 채널이 줄어들고, 연구재단의 기준을 맞추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13명, 31.0%)

<표 48> 오픈엑세스 논의에서 나타난 문제점

문제점	응답자수(%)
상용DB로부터의 저작권 수입이 없어짐	12(28.6%)
국내사례가 적음	12(28.6%)
회원반대	5(11.9%)
기타	13(31.0%)
계	42(100%)

4.5.2 오픈엑세스에 대한 선호도

오픈엑세스 출판에 대한 논의 경험은 없더라도 편집자가 관여하고 있는 학술지가 오픈엑세스 방법으로 출판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상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원문서비스 방법에 대한 고민이 21명(42.0%)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오픈엑세스에 대한 지식정도가 낮아, 오픈엑세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응답자가 최선의 원문서비스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연구자 및 편집위원의 인식부족으로 20명(40.0%)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다른 위원들도 잘 모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상용DB로부터의 저작권 수입에 대한 우려는 논의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많지 않았다.(4명, 8.0%)

오픈엑세스 논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상용DB로부터의 수익이 적을지라도 수익이 있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현실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논의 경험이 없을 경우는 재정의 관심보다는 적절한 원문서비스 방법 자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 의견으로는 현재 실질적으로 시행중이라는 의견과 배포의 어려움이 없음, 출판에서의 비용 발생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

<표 49> 오픈엑세스 출판시 예상 문제점

예상 문제점	응답자수(%)
어떤 방식으로 원문서비스 해야할지 고민됨	21(42.0%)
연구자 및 편집위원의 인식부족으로 반대	20(40.0%)
상용DB 업체로부터의 저작권 수입이 없어짐	5(10.0%)
기타	4(8.0%)
계	50(100%)

응답자 개인 입장에서 오픈엑세스 출판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매우 불만족은 없었으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9명(20.7%)이었다. 만족한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54명(58.7%)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19명(20.7%)으로 조사되었다. 불만족이 19명(20.7%) 나온 것은 오픈엑세스가 이용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출판방식이나 연구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게재 논문이 무료로 배포되는 것으로 인해 수익을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표 50> 오픈엑세스에 대한 선호도

선호정도	응답자수(%)
매우 불만족	0(0.0%)
불만족	19(20.7%)
만족	54(58.7%)
매우 만족	19(20.7%)
계	92(100%)

오픈엑세스 원문서비스 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생각되는 기관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한국연구재단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4명(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는 연구소 홈페이지라고 32명(34.8%)이 응답하였다. 대학도서관과 대학 내 학술연구사이트는 각각 3명(3.3%)으로 많지 않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별도의 저널 사이트와 전문센터를 통해 오픈엑세스 방식으로 원문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통해 응답자들은 정부 주도의 오픈엑세스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직접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한 오픈엑세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51> 오픈엑세스 방식으로 학술지 발행시 적절한 원문서비스 기관

원문서비스 기관	응답자수(%)
한국연구재단	44(47.8%)
연구소 홈페이지	32(34.8%)
비영리기관	7(7.6%)
대학의 도서관	3(3.3%)
대학 내 학술연구사이트	3(3.3%)
기타	3(3.3%)
계	92(100%)

4.6 저작권 관리

4.6.1 저작권 소유 주체

1) 저작권 소유

저작권 소유 주체를 조사한 결과 연구소가 소유하는 경우가 58명(63.0%)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는 저자와 연구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가 19명(20.7%)이며, 저자가 소유하는 경우는 10명(10.9%)로 조사되었다. 기타의견으로는 규정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있었다.

<표 52> 저작권 소유 주체

소유 주체	응답자수(%)
연구소	58(63.0%)
저자와 연구소 공동	19(20.7%)
저자	10(10.9%)
기타	5(5.5%)
계	92(100%)

2) 저작권 안내

저작권 표기 안내에서 학술지와 홈페이지 모두 표기하고 있다는 응답이 54명(58.7%)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는 학술지에만 표기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5명(16.3%)으로 나타나 홈페이지를 통한 저작권 안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 중 공개되어있지 않거나 모르겠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응답이 19명(20.7%)으로 나타나 원문서비스 관리에 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3> 저작권 안내방법

표기방법	응답자수(%)
학술지와 홈페이지 모두	54(58.7%)
학술지에만 표기	15(16.3%)
공개되어있지 않다	7(7.6%)
홈페이지에만	4(4.3%)
저작권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	2(2.2%)
모르겠다	10(10.9%)
계	92(100%)

3) 저작권양도동의서

저작권양도동의서 작성여부를 조사하였다. 동의서를 작성한다는 응답이 44명(57.1%)으로 홈페이지 조사 내용과(296종 중 30종) 달리 상당히 많은 등재지가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동의서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거나 날인을 위해 인쇄물 형태로 사용하여 홈페이지에 파일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54> 저작권양도동의서 작성여부

사용유무	응답자수(%)
있다	44(57.1%)
없다	33(42.9%)
계	92(100%)

4.6.2 저작권 소유에 대한 편집인의 의견

연구소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을 누가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저자와 연구소 공동으로 소유하거나(39명, 42.4%) 연구소가 소유하는 것(35명, 38.0%)이 좋다는 응답이 많았다. 저자가 소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은 12명(13%)으로 많지 않았으며, 기타 의견으로 누가 소유하든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있었다.

<표 55> 저작권 소유 주체에 대한 의견

소유 주체	응답자수(%)
저자와 연구소 공동	39(42.4%)
연구소	35(38.0%)
저자	12(13.0%)
잘 모르겠다.	5(5.4%)
기타	1(1.1%)
계	92(100%)

연구소 편집자의 저작권 소유 주체 선택 이유를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하였다. 모두 52명이 응답하였으며, 연구소가 소유하는 경우, 저자가 소유하는 경우, 연구소와 저자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을 때의 의견을 각각 정리하였다.

<표 56 > 저작권 소유 주체 선택이유에 대한 개방형 응답

저작권 소유 주체	선택이유	응답자수
연구소(25명)	발행후 논문 배포 및 관리의 편의성	11
	연구소의 제작비 부담 및 연구비 지급	8
	믿을 수 있으며, 신뢰성이 높은 기관이므로	3
	관행적으로	2
	규정에 따라	1
저자(7명)	저자의 논문처리비용 납부	3
	개인의 창작물이기 때문	3
	잘 모르겠다	1
연구소와 저자 공동(19명)	저자는 저술, 기관은 제작 및 배포에 기여	8
	저작권은 공동의 자산이라서	6
	발행기관과 저자의 형평성	4
	연구역량 및 상호 신뢰하기 때문	1
기타(1명)	자유롭게 선택가능	1
합계		52

연구소가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서는 논문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연구소가 소유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응답과 연구소에서 저자에게 연

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연구소가 소유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배포와 이용확대를 위해 연구소 소유가 좋다는 응답이 있었다. 저자가 소유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논문이 개인창작물이라서는 의견과, 연구소의 지원이 없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하지만 무상이용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있었다. 연구소와 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서는 논문이 개인의 지적 창작물인 것은 인정하지만 이후 출판과 관리에 있어 연구소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 이유로 조사되었다.

4.7 학문분야에 따른 차이 검정

학문분야에 따라 편집자의 오픈엑세스 지식정도와 연구자의 오픈엑세스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였다. 검정시 전체 응답자수 92건의 분야별 분포는 인문학이 44종, 사회과학이 30종이며, 나머지 분야 모두를 기타로 처리하였다. 기타로 분류된 종수는 18종이다. 검정내용은 학문분야에 따른 원문서비스의 차이, 학문분야에 따른 오픈엑세스 인식 차이, 학문분야에 따른 저작권 소유 주체 차이를 평균비교와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여 검정하였다. 영역별 검정결과 학문분야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검정영역에서 모든 학문분야가 공통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7.1 원문서비스 실시 방법

학문분야에 따른 원문서비스 선택기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943$, $P=0.178$). 학술지 수록 논문의 노출과 인용확대가 전체 46명(50%)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뒤를 이어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는 전체 40명(43.5%)의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학문분야에 따른 원문서비스 선택기준의 차이 검정

분야별	대부분의 연구소에서 하기 때문	저작권료를 통한 수익 창출	학술지 수록 논문의 노출과 인용확대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합계	χ^2	유의 확률
인문	3	0	25	16	44	8.919	.178
	6.8%	.0%	56.8%	36.4%	100.0%		
사회	1	0	11	18	30		
	3.3%	.0%	36.7%	60.0%	100.0%		
기타	1	1	10	6	18		
	5.6%	5.6%	55.6%	33.3%	100.0%		
전체	5	1	46	40	92		
	5.4%	1.1%	50.0%	43.5%	100.0%		

p<0.05*, p<0.01**, p<0.001***

학문분야에 따른 원문서비스 복수시행 이유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는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7.434$, P=0.283). 학술지 수록 논문의 노출과 인용확대가 전체 76명(87.4%)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뒤를 이어 각 채널마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은 전체 7명(8%)의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학문분야에 따른 원문서비스 복수시행 이유의 차이 검정

분야별	각 채널마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	학술지 수록 논문의 노출과 인용확대	학술지 출판비용 확보를 위한 이익창출	기타	합계	χ^2	유의 확률
인문	4	38	1	0	43	7.434	.283
	9.3%	88.4%	2.3%	.0%	100.0%		
사회	3	21	1	2	27		
	11.1%	77.8%	3.7%	7.4%	100.0%		
기타	0	17	0	0	17		
	.0%	100.0%	.0%	.0%	100.0%		
전체	7	76	2	2	87		
	8.0%	87.4%	2.3%	2.3%	100.0%		

p<0.05*, p<0.01**, p<0.001***

4.7.2 오픈엑세스에 대한 인지 및 선호도

학문분야에 따른 오픈엑세스 지식정도의 평균비교를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표 52>에서 조사된 편집자의 오픈엑세스 지식정도를 학문분야별로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1.943$, $P=0.143$). 따라서 학문분야에 따른 편집자의 오픈엑세스 지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학문분야에 따른 편집자의 오픈엑세스 지식 차이 평균비교

분야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인문학	44	2.11	1.039	1.943	.149
사회과학	30	2.33	.922		
기타	18	2.67	1.085		

$p<0.05^*$, $p<0.01^{**}$, $p<0.001^{***}$

학문분야에 따른 편집자의 오픈엑세스 지식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0> 학문분야에 따른 편집자의 오픈엑세스 지식 차이 검정

분야별	전혀 모른다	조금 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합계	χ^2	유의 확률
인문	16	12	11	5	44	10.722	.097
	36.4%	27.3%	25.0%	11.4%	100.0%		
사회	8	5	16	1	30		
	26.7%	16.7%	53.3%	3.3%	100.0%		
기타	4	2	8	4	18		
	22.2%	11.1%	44.4%	22.2%	100.0%		
소계	28	19	35	10	92		
	30.4%	20.7%	38.0%	10.9%	100.0%		

$p<0.05^*$, $p<0.01^{**}$, $p<0.001^{***}$

학문분야에 따른 연구자의 오픈엑세스 선호도에 대한 평균비교를 위해 일

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6>에서 조사된 분야별 응답자의 오픈 액세스 선호도를 학문분야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야에 따라 선호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F=1.415$, $P=0.248$). 따라서 학문분야에 따른 응답자의 오픈 액세스 선호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학문분야에 따른 오픈 액세스 선호도 차이 평균비교

분야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인문	44	3.32	.857	1.415	.248
사회	30	3.30	.837		
기타	18	3.67	.594		

$p<0.05^*$, $p<0.01^{**}$, $p<0.001^{***}$

학문분야에 따른 응답자의 오픈 액세스 선호도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문분야에 따라 응답자의 오픈 액세스 선호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학문분야에 따른 오픈 액세스 응답자의 선호도 차이 검정

학문 분야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합계	χ^2	유의 확률
인문	11	8	25	44	3.484	.480
	25.0%	18.2%	56.8%	100.0%		
사회	7	7	16	30		
	23.3%	23.3%	53.3%	100.0%		
기타	1	4	13	18		
	5.6%	22.2%	72.2%	100.0%		
소계	19	19	54	92		
	20.7%	20.7%	58.7%	100.0%		

$p<0.05^*$, $p<0.01^{**}$, $p<0.001^{***}$

학문분야에 따른 오픈 액세스 출판시 적합한 원문서비스 기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은 전체 44명 (47.8%)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귀 연구소 홈페이지는 전체 32명(34.8%)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학문분야에 따른 오픈액세스 원문서비스 기관의 차이비교

	연구소 홈페이지	학술 연구 사이트	대학의 도서관	NDSL, RISS	한국연구재단 (KCI)	기타	전체	χ^2	유의 확률
인문	12	1	1	4	25	1	44	11.20 5	.342
	27.3%	2.3%	2.3%	9.1%	56.8%	2.3%	100.0%		
사회	12	2	2	2	12	0	30		
	40.0%	6.7%	6.7%	6.7%	40.0%	.0%	100.0%		
기타	8	0	0	1	7	2	18		
	44.4%	.0%	.0%	5.6%	38.9%	11.1%	100.0%		
전체	32	3	3	7	44	3	92		
	34.8%	3.3%	3.3%	7.6%	47.8%	3.3%	100.0%		

p<0.05*, p<0.01**, p<0.001***

4.7.3 저작권 소유 주체에 대한 의견

학문분야에 따른 저작권 소유 주체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전체 58명(63%)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뒤를 이어 저자와 연구소 공동은 19명(20.7%)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학문분야에 따른 저작권 소유 주체의 차이 비교

	연구소	저자	저자와 연구소 공동	기타	합계	χ^2	유의 확율
인문	26	5	9	4	44	3.328	.767
	59.1%	11.4%	20.5%	9.1%	100.0%		
사회	19	4	6	1	30		
	63.3%	13.3%	20.0%	3.3%	100.0%		
기타	13	1	4	0	18		
	72.2%	5.6%	22.2%	.0%	100.0%		
전체	58	10	19	5	92		
	63.0%	10.9%	20.7%	5.4%	100.0%		

p<0.05*, p<0.01**, p<0.001***

학문분야에 따른 선호하는 저작권 소유 주체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와 연구소 공동은 99명(42.4%)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연구소는 전체 35명(38%)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학문분야에 따른 선호하는 저작권 소유 주체의 차이 비교

	연구소	저자	저자와 연구소 공동	잘 모르겠 다.	기타	합계	χ^2	유의 확율
인문	13	7	21	2	1	44	7.902	.443
	29.5%	15.9%	47.7%	4.5%	2.3%	100.0%		
사회	14	5	10	1	0	30		
	46.7%	16.7%	33.3%	3.3%	.0%	100.0%		
기타	8	0	8	2	0	18		
	44.4%	.0%	44.4%	11.1%	.0%	100.0%		
전체	35	12	39	5	1	92		
	38.0%	13.0%	42.4%	5.4%	1.1%	100.0%		

p<0.05*, p<0.01**, p<0.001***

4.8 설문조사 결과 요약

학술지 발간 재원은 연구소 등재지 중 77명(83.7%)은 부분·전체적인 대학 지원으로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었으며, 연구소 자체에서 충당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5명(5.4%)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학술지 발간을 담당인력을 지원하는 경우는 90명으로, 전체 등재지 중 학술지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97.8%가 근무한다고 조사되었으며, 전담 인력의 인건비의 경우 20명(21.7%)가 연구소에서 지급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77명(78.3%)는 일부 또는 전체를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건비 외에 대학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연구소 공간, 인쇄비, 기자재 및 컴퓨터, 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 유지, 전산소모품, 우편비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연구소 등재지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하여 회원 자격이 필요한가를 조사한 결과, 가입비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70명(76.1%), 연회비가 없다는 경우도 88명(95.7%)으로, 가입비가 없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으며, 가입비가 있는 경우에도 연회비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볼 때 학회의 경우 연회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으나, 연구소는 대학의 지원으로 연회비를 받지 않더라도 등재지 발간에 있어 재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논문 처리비용을 조사한 결과, 심사비가 없는 경우가 36명(39.1%), 논문게재료가 없는 경우가 47명(51.1%)으로, 적지 않은 연구소 등재지가 심사비와 논문게재료가 없었다. 특별히 연구비 수혜가 있었던 논문의 경우에도 일반논문과 게재료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74명(91.3%)로 나타났다. 학회의 경우 논문게재료를 출판비로 충당하는 것에 비해, 연구소는 출판과정에서 대학의 지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소 등재지는 저자로부터 논문처리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출판시 금전적인 부담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원문서비스 방법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제공과 상용DB를 통한 원문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원문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88명(95.7%)으로 대다수이었으며,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원문서비스를 하는 이유로는 학술지 수록 논문의 노출과 인용확대로 나타났다. 또한 원문 제공 채널의 선택시 기준은 학술지의 논문의 노출과 인용확대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라고 조사되었다. 1개의 원문서비스 채널로는 노출 및 인용확대와 학술지 평가 모두를 충족할 수 없어 2가지 이상의 채널을 이용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문서비스를 하고 있는 채널에서의 따른 선택이유와 불편사항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문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우의 선택이유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원문서비스(26명, 31.0%)와 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이며(24명, 28.6%),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서비스에서 문제점은 낮은 인지도라고 43명(51.2%)이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소 등재지가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인지도가 낮은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용DB를 통한 문제점으로는 발생수입이 너무 적다고 응답하였다(22명, 31.4%). 상용DB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없거나(11명, 15.7%) 100만원 미만(46명, 65.7%)의 금액을 받고 있었으며, 대체로 재정의 기여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55명, 78.5%). 재정의 기여는 낮지만, 상용DB를 선택한 이유는 학술지 수록 논문의 노출과 인용확대(40명, 57.1%)로 조사되었다.

대학도서관을 통한 원문서비스 선택 이유는 대학 내 다양한 학술정보의 통합이라고 응답이 15명(48.4)이었으며, 대학도서관을 통한 원문서비스의 문제점으로는 불편한 점이 없는 경우가 14명(45.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타 학술지 통합검색이 부족이 8명(25.8%)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타 대학도서관과의 검색 및 이용의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연구소 입장에서 상당히 만족할 만한 원문서비스 채널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비영리기관을 통한 원문서비스에서는, 2013년부터 시작된 KCI를 통한 원문서비스가 41.6%의 연구소 참여로 빠른 확대를 보이고 있다. 비영리기관을 통한 원문서비스의 불편한 점은 메뉴 수정 등의 연구소 의견 반영이 어렵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비영리기관이 대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으로 인해 의견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액세스에 인지 정도를 조사하였다. 오픈액세스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47명(51.1%)이었다. 오픈액세스 출판 논의 경험에 대해서도 없다

고 응답한 경우가 50명(54.3%)이 응답하였다. 이는 오픈액세스의 지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인해 논의 경험 자체가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오픈액세스 출판 논의에서 염려하고 있는 사항은 상용DB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없어지는 것(12명, 28.6%)과 국내사례가 적은 것(12명, 28.6%)이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연구소에서 상용DB로부터의 재정기여도가 낮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55명, 78.5%), 적은 수익이지만 상용DB로부터 원문서비스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사례가 적다는 우려는 국내 대학에서의 오픈액세스 출판 사례를 접해보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국내 사례에 대해 논의경험이 없는 경우(50명, 54.3%)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적절한 문서서비스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된다는 응답(21명, 42.0%)과 연구자 및 편집위원의 오픈액세스 인식이 부족한 것(20명, 40.0%)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픈액세스 자체에 대한 인지 정도가 낮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입장에서는 오픈액세스를 선호하고 있었으며(73명, 78.7%), 이중 불만족이 19명(20.7%)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응답자가 이용자 입장보다는 연구자 입장에서, 무료배포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픈액세스 방식으로 등재지를 발행하였을 때 가장 적절한 원문서비스 기관으로는 한국연구재단과 연구소 홈페이지를 선택한다는 응답이 많아, 한국연구재단을 통한 오픈액세스를 선호하고 있으며, 여전히 한국연구재단 평가가 오픈액세스 출판시 선호하는 서비스 채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작권 안내 방법은 학술지와 홈페이지 모두에서 하고 있다는 응답이 54명(5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저작권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모르겠다는 응답도 12명(13.1%)으로 나타나, 원문서비스에 비해 저작권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저작권 소유 주체로 연구소와 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면 좋겠다는 응답이 39명(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연구소가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5명, 38.0%). 연구소와 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이유는 저자는 저술, 연구소는 제작 및 배포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이 19명 중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소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경우는 논문의 배포 및 관

리의 편의성(11명)과 연구소의 제작비 부담(8명)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저자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저자의 논문처리비용 납부와 개인의 창작물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실제 저작권 소유는 연구소가 가지는 경우가 58명(63.0%)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현재 원문서비스가 주로 상용 DB를 통해 이루어져 등재지 관리과 배포를 위해 연구소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학문분야에 따른 차이를 검정하였다. 검정시 인문, 사회분야 등재지가 많고 나머지 분야 등재지는 종수 자체가 많지 않아, 검정 대상 집단을 인문학, 사회과학, 기타로 분류하였다. 분야별 차이 검정 내용은 원문서비스 선택기준, 원문서비스 복수 시행시 선택 이유, 오픈액세스 지식정도, 오픈액세스 선호도, 오픈액세스 출판시 적합한 원문서비스 기관, 현재 저작권 소유 주체, 선호하는 저작권 소유 주체에서 분야별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검정결과 검정항목 모두 분야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연구소 등재지의 원문서비스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5.1 문제점 분석

연구소 등재지의 원문서비스와 저작권 귀속현황을 조사하고, 연구소 등재지의 편집자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소 등재지 수록논문의 노출과 인용확대를 위해 다양한 원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각각의 원문서비스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연구소 등재지 중 91.2%(270종)가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용자가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홈페이지에 접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만일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논문이 여러 편일 경우에는 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논문을 수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등재지 편집자들은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낮은 인지도(43명, 51.2%)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연구소가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함이다. 이처럼 수록논문의 인용확대에 대한 기대는 낮으나 학술지 평가를 위해 불필요하게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연구소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상용DB를 통한 원문서비스는 원문 유료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일부 이용자에게는 이용장벽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 구성원은 소속 대학도서관의 학술정보 지원을 통해 무료로 다양한 기관의 등재지를 이용할 수 있지만,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연구자와 기관에 소속되었더라도 상업DB와 계약 관계가 없는 기관의 소속 연구자인 경우 학술정보 이용에 금전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상용DB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없거나, 재정의 기여도는 낮게 나타났다. 등재지 출판비용을 대학에서 지원하는 연구소가 많았으며,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은 상용DB를 통해 구입하여 대학 구성원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이는 대학에서 등재지의 출판비용을 부담하고, 출판한

등재지를 다시 대학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대학이 비용을 이중 지불하는 문제가 있다.

비영리기관을 통한 원문서비스에서 RISS와 NDSL을 통하여 원문이 제공되는 등재지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NDSL을 통하여 서비스되고 있는 연구소 등재지는 6종이었는데, 이는 연구소 등재지중 자연, 공학, 농수해양 분야 학술지가 모두 8종 밖에 안된다는 점으로 보아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RISS의 경우는 국내 241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기관 리포지터리인 dCollection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되고 있는 등재지는 7종에 불과하였다. 이는 dCollection이 여전히 기관 리포지터리가 아니라 학위논문 수집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KCI는 다른 두 기관에 비해 제공하고 있는 연구소 등재지가 많았다. 이는 한국연구재단이 학술지 평가를 위하여 학술기관으로부터 원문을 제출받는데, 이때 원문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함께 받음으로써 자연스럽게 KCI에서 제공되는 연구소 등재지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RISS나 NDSL이 연구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전문 학술정보서비스 센터인 것과 달리 KCI는 여전히 연구자들에 학술정보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인식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령 KCI가 지속적인 홍보로 학술지 원문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인지도가 확산된다고 할지라도 전문 학술정보서비스 기관처럼 다양한 학술정보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주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연구소 등재지의 저작권 정책을 분석한 결과 저작권을 연구자가 소유한 경우가 76.3%(100종)로 저자가 소유한 경우 16.8%(22종)보다 훨씬 많았다. 저작권을 연구소에 양도함으로써, 저자는 자신의 학술저작물이지만 본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으며, 본인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형 할 수 없다. 저자는 자신의 논문의 인용확대를 위해 원하는 리포지터리를 선택할 수 없으며, 연구소에서 출판한 논문의 특정 버전만이 배포된다. 이는 저자가 출판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OAS 요소 중 저자의 재사용 권한과 저자의 게시 권한에서 가장 낮은 개방 수준을 나타내며, 셀프 아카이빙을 통한 오픈액세스 출판을 어렵게 한다. 결

과적으로 연구소 등재지 논문의 이용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연구소 편집자의 오픈엑세스 지식과 인식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오픈엑세스 출판을 통한 인용확대의 효과는 국제적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고, 전세계적으로 논문의 인용확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출판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소 등재지 편집인의 절반 이상(47명, 51.1%)이 오픈엑세스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픈엑세스의 방식이나 정보가 부족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소는 운영에 있어 대학의 재정 지원이 있으며, 대부분의 등재지가 출판시 필요한 논문처리비용을 대학이 지원하고 있어 출판비용이 이미 해결된 상태이다. 그러나 연구소 등재지 편집자 및 편집위원들은 오픈엑세스 논의에서 상용DB로부터의 저작권 수입이 사라지는 것과(12명, 28.6%), 국내사례의 부족(12명, 28.6%)을 염려하였다.

5.2 개선 방안

연구소 등재지 원문서비스와 저작권 귀속현황, 연구소 편집자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소 등재지의 접근성 확대와 인용의 증가를 위한 원문서비스와 저작권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무료 원문서비스 채널의 확대와 채널 선택의 유연성을 지원한다. 원문서비스의 채널의 확대를 위해 KCI를 통한 원문서비스, 셀프 아카이빙을 활성화하고 상용DB에서 무료원문이 제공될 수 있는 연계서비스를 모색한다. KCI를 통한 원문서비스는 한국연구재단의 시스템으로 신뢰도가 높고 안정적인 원문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현재에도 등재지와 등재를 원하고 있는 학술지는 발간일 일주일 이내에 KCI에 원문을 탑재토록 학술지 평가에서 평가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미 상당한 양의 원문이 KCI에 누적된 상태이다. 현황조사에서 41.6%의 연구소 등재지의 원문이 제공되고 있다. 아직 KCI에 원문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연구소는 수록논문 저자와 원문제공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낸다. 또한 KCI에서는 학술기관의 원문제공 동의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KCI를 통한 원문서비스는 서비스 내용이 논문에 한정

되어 있어 연구자들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RISS와 NDSL에 원문 공유하여 연계서비스가 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원문서비스 확대를 위해 셀프 아카이빙을 활성화한다. 우리나라에는 대학의 대표적인 기관 리포지터리로 dCollection이 있으며, D-Space를 기반으로 한 대학의 기관 리포지터리가 있다. dCollection은 KERIS에서 전국 241개(2015년 6월 기준) 대학에 학술정보 통합을 위하여 구축하였으며, 현재 등재지를 발간하는 연구소가 속해 있는 대학 중 dCollection이 구축된 대학은 70개로 나타났다. 대학의 리포지터리는 D-Space를 기반으로 하여 리포지터리가 구축되어 있는 대학이 있었다. OAK(Open Access Korea)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을 기준으로 서울대, 카이스트, 인하대, 아주대, 울산과학대, 포항공대가 대학에 기관 리포지터리가 구축되어 있었다. 대학의 기관 리포지터리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소는 저자들에게 셀프 아카이빙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며, 도서관은 셀프 아카이빙의 기술적 문제를 지원하며, 대학은 대학 내의 학술정보를 리포지터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등재지 출판시 대학의 지원으로 투고자에게 별도의 논문처리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 셀프 아카이빙을 하도록 투고 규정에 명시하도록 한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에게 셀프 아카이빙에 대한 기술적 내용을 교육하고, 매뉴얼 등을 지원한다. 대학 본부는 소속 대학의 연구자 외에 대학 외부에서 투고된 논문의 셀프 아카이빙을 위해 연구소에서 투고자를 대신하여 게재 확정된 논문을 탑재하도록 한다. 또한 연구소 평가시 리포지터리에 탑재된 연구실적을 평가의 증빙으로 사용토록 연구소 평가 규정을 수정토록 한다.

대학의 기관 리포지터리 외에 한국연구재단에서 무상으로 보급중인 JAMS(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를 통해서도 셀프 아카이빙이 가능하다. JAMS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목적으로 논문 게재의 객관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논문 투고 및 심사, 전자저널 생성 등 학술논문의 생산·유통과 관련된 모든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며, 연구자의 논문 제출시 CCL적용과 오픈엑세스 동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논문 외에 학술대회 자료와 최종 게재 확정 논문에 대해 발

행 전 Pre-Print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e-Journal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행된 학술지 논문은 KCI 시스템으로 이관되는 편리함을 가지고 있다. 이는 별도의 리포지터리나 대학도서관에 dCollection이 구축되지 않은 연구소에게 적절하며, 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에 신청을 통해 무료 구축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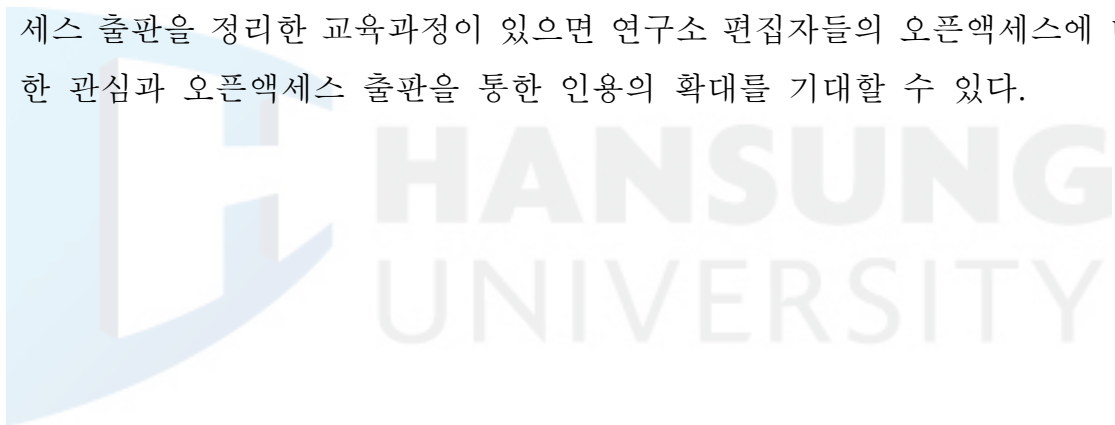
상용DB를 통한 무료서비스를 위해서 대학의 리포지터리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와의 연계서비스를 제안한다. 상용DB중 하나인 DBpia를 기준으로 비영리기관인 KISTI, KDI, 법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학술정보를 연계서비스를 통해 무상제공하고 있으며, 무상제공시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상용DB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많지 않고 재정의 기여도가 높지 않은 연구소가 많아, 상용DB와의 계약시 수익을 받지 않는 대신 무상서비스를 요구하여, 상용DB에서의 통합검색과 무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지 평가 항목에서 “학술지 및 수록 논문의 온라인 접근성” 항목의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소 등재지가 KCI와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서비스 외에 다른 채널을 통한 원문의 무상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면 추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연구소는 원문서비스 채널 확대와 채널 선택에서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

둘째, 저작권 귀속에 있어서는 귀속주체를 연구소 환경과 고려하여 자유롭게 선택하되, 이용자와 저자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등재지 발간시 대학의 지원이 충분하며, 상용DB로 부터의 수익 및 수익의 재정기여도가 낮을 경우에는 저자가 소유하도록 하여, 저자와 이용자 모두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도록 한다. 반대로 상용DB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할 경우, 대학 및 외부의 지원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상용DB를 통한 원문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연구소에서 저작권을 보유하되, 논문의 노출과 인용확대를 위해 다른 리포지터리 또는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의 게시(Posting)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논문투고자로부터 논문처리비용을 받고 있거나, 논문 관리의 일원화 및 배포 등의 이유로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 소유 주체가 어떠한지 연구소는 저자의 재사용과 저자의 게시 권한, 기계적 가독성과 관련된 정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규정은 원문서비스 채널에서의 원문 제공 페이지와 논문투고시 안내 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연구소 등재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원문제공과 논문의 노출을 통한 인용의 확대가 이루어 질수 있다.

셋째, 한국연구재단은 대학부설연구소 편집자 및 연구자에게 오픈액세스에 대한 지식과 정확한 정보, 오픈액세스 출판 방법을 안내하며, 오픈액세스 출판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한국연구재단은 대학부설연구소에 오픈액세스에 대한 소책자를 제작하여 연구소에 배포하며, 연구자는 한국연구재단과 대학 내 연구지원기관을 통하여 안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소책자 내용에는 오픈액세스 출판을 위한 논문처리비용 확보와 저작권 안내가 수록되며, 이를 통해 연구소 자체에서 오픈액세스 출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편집자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오픈액세스 출판을 통해 이루어진 인용확대 사례,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리포지터리 활용 등의 설명회와 오픈액세스 출판을 정리한 교육과정이 있으면 연구소 편집자들의 오픈액세스에 대한 관심과 오픈액세스 출판을 통한 인용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연구소 등재지의 이용확대와 수록 논문의 인용증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소 등재지 296종에 대한 원문서비스 현황과 저작권 귀속 현황, 연구소 편집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를 기초로 원문서비스에서의 한계점과, 저작권 소유와 관련한 문제점, 오픈액세스 관련 지식과 인식이 낮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원문서비스에서의 한계점으로는 연구소 등재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원문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각 원문서비스 채널별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었다.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서비스에서는 낮은 인지도로 인해 논문 이용이 확대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으며, 상용DB를 통한 서비스는 유료서비스로 인한 비용의 장벽을 안고 있었다. 비영리기관에서의 원문서비스에서도 한계점이 나타났다. KCI는 연구자 외에는 원문서비스 채널로서의 인식이 낮아 이용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RISS는 대학 내의 학위논문 외에 학술정보의 탑재는 미진하였다. 또한 NDSL의 경우, 서비스되고 있는 학문분야가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학문분야의 서비스에서는 제약이 있음이 나타났다.

둘째, 연구소 등재지의 저작권 정책을 분석한 결과, 저작권의 소유 주체는 연구소이었으며, 저자가 소유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로 인해 셀프 아카이빙을 통한 논문의 제출과 리포지터리 선택의 제약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논문의 이용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연구소 편집자의 오픈액세스 지식과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등재지 출판에 있어 대학의 인적, 물적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오픈액세스의 지식이 부족하여 오픈액세스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며, 알고 있더라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무료 원문서비스 채널의 확대와 채널 선택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KCI와 RISS, NDSL의 서비스 연계를 통한 원문 제공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셀프 아카이빙을 활성화가 이루어져야하며, 연구자 및 연구소 논문의 오픈액세스 출판을 위해 연구소, 대학 본

부의 규정을 통한 방법과 대학도서관의 기술지원을 제안하였다. 셋째, 연구소 편집자 및 연구자의 오픈액세스 지식확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에서의 소책자 제작과 오픈액세스 출판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대학의 지원으로 인해 연구소가 학술지 출판에 있어 학회와 다른 연구기관과는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소 등재지가 오픈액세스 출판에 있어 유리한 입장임을 실증 분석하였다. 추후 국내 오픈액세스의 인용증가에 대한 연구들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연구소 등재지의 오픈액세스 출판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노경란, 이해진. (2010). 『학술정보센터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 오픈엑세스 출판』.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원.
- 신은자. (2010). 이공계 학술논문의 연구비 지원 및 오픈엑세스 현황 분석:S 대를 중심으로. 『정보관리연구』, 41(4): 1-21.
- 우지숙. (2009). 학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 학술저작물에 대한 권리 및 유통에 관한 저자의 의식 연구. 『한국방송학보』, 23(3): 125-165.
- 장덕현, 노류하, 이수상. (2008). R&D 성과물 공동활용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39:4, 1-20.
- 정경희. (2008). 국내 학술지 웹DB 구독료 현황과 오픈엑세스에 대한 사서의 인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3) : 365-382.
- _____. (2011). 오픈엑세스 출판에 대한 학술지 편집인의 인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8(4) : 183-200.
- 최재황, 조현양. (2005). 오픈 액세스 운동의 동향과 학술적 이해관계자의 대응전략. 『정보관리학회지』, 22(3): 1-20.
- 최희운, 황혜경, 백종명. (2012). 국내 오픈엑세스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9(1): 279-302.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2). 『2012 데이터베이스 백서』. 서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 국외문헌

- Bailey, C. W. (2007). Open Access and Libraries. *Collection Management*, 32(3-4), 351-383.
- Björk, B. C. (2007). A Model of Scientific Communication as a Global Distributed Information System. *Information Research*, 12(2): 307.
- Björk, B. C. et al. (2010). Open access to the scientific journal literature: Situation 2009. *PLoS One*, 5(6), 1-9.
- Björk, B. C. & Solomon, D. (2012) Open access versus subscription journals: a comparison of scientific impact. *BMC Medicine*, 10 : 73.
- _____. (2014). Developing an effective market for open access article processing charges. *Wellcome Trust Report*. Retrieved June 15, 2015, from http://www.wellcome.ac.uk/stellent/groups/corporatesite/@policy_communications/documents/web_document/wtp055910.pdf.
-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2002). Read the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Retrieved June 15, 2015, from <http://www.budapestopenaccessinitiative.org/readBailey>.
- Charles, W. (2007). Open Access and Libraries. *Collection Management*, 32(3-4), 351-383.
- Curtis, D. (2005). *E Journals: a How-todo-it Manual for Building, Managing, and Supporting Electronic Journal Collections*. London: Facet Publishing.
- Donovan, JM., Watson, CA. & Osborne, C. (2014). The Open Access Advantage for American Law Reviews. Retrieved June 10, 2015, from <http://ssrn.com/abstract=2506913>

- Harnad, S. & Brody, T. (2004). Comparing the impact of open access (OA) vs. non-OA articles in the same journals. *D-Lib Magazine*, 10(6).
- Harnad, S. & Suber, P. (2008). Strong and weak OA. Open Access News. Retrieved June 15, 2015, from <http://www.earlham.edu/~peters/fos/2008/04/strong-and-weak-oa.html>
- Kennan, M. & Kautz, K. (2007). Scholarly publishing and open access: searching for understanding of an emerging is phenomenon. *In 15th European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St. Gallen , Switzerland, June 7–9, 2007.
- Laakso, M. et al. (2011). The development of open access journal publishing from 1993 to 2009. *PLoS ONE*, 6(6), 1–10.
- Lawrence, S. (2001). Free online availability substantially increases a paper's impact. *Nature*, 411(6837), pp.521–521. Retrieved June 11, 2015, from <http://www.nature.com/nature/debates/e-access/Articles/lawrence.html>.
- Norris, M., Oppenheim, C. & Rowland, F. (2008). The citation advantage of open-access article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9 (12), pp. 1963–1972.
- Suber, P. (2008). Gratis and libre open access. SPARC Open Access Newsletter. Retrieved June 15, 2015, from <http://www.sparc.arl.org/resource/gratis-and-libre-open-access>.
- _____. (2013). Open access overview: Focusing on open access to peer-reviewed research articles and their preprints. Retrieved June 13, 2015, from <http://legacy.earlham.edu/~peters/fos/overview.htm>

- Swan, A. (2010). The open access citation advantage: Studies and results to date, pp.1–17. Retrieved June 12, 2015, from <http://eprints.soton.ac.uk/id/eprint/268516>
- Tonta, Y., Ünal, Y. & Al, U. (2007). The Research Impact of Open Access Journal Articles. *Proceedings ELPUB 2007,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 Publishing*. Vienna, 13–15 June 2007. Retrieved June 10, 2015, from <http://eprints.rclis.org/9424/>



<부록 1>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손천익입니다.

본 설문은 대학 환경에서 연구소와 연구자, 이용자를 위한 바람직한 학술정보의 공유와 이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대학부설연구소 학술지의 합리적인 원문서비스 방안을 찾고자 대학부설연구소에서 발행하는 KCI 등재 학술지를 대상으로 학술지 발행과 배포 등의 사항에 대하여 편집위원장 또는 학술지를 총괄하시는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조사의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이 글을 읽어 주신 대학부설연구소 학술지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편집위원장 또는 학술지 운영을 대표하시는 분에게 설문내용이 전달되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지도교수 : 정 경 희 교수

연구자 : 손 천 익

I. 연구소 운영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1. 귀하가 발간하는 대학부설연구소 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의 학문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인문() ②사회() ③예술체육() ④복합학()
⑤자연() ⑥공학() ⑦의약학() ⑧농수해양()

2. 귀 연구소에서 학술지 발행을 위한 예산의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대학의 재정지원 ② 연구소 자체 활동만으로
③ 대학의 재정지원과 연구소 자체 활동 ④ 기타()

3. 귀하의 연구소에 연구자를 제외한 학술지 발간을 담당하는 인력(간사, 행정조교)이 있을 경우 인원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만일 없다면 0을 기입해 주십시오.

- ① 풀타임 직원 및 간사 (명) ② 조교 (명)

4. 귀 연구소에서 위 3번의 학술지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방식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대학에서 지급 ② 연구소에서 지급
③ 일부는 대학에서 일부는 연구소 분담

5. 인건비 지원 외에 귀 대학에서 연구소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모두 표시해주세요.

- ① 연구소 공간 지원 ② 홈페이지 구축
③ 홈페이지 유지(웹호스팅 지원)
④ 우편비 지원 ⑤ 기자재 및 컴퓨터 지원 ⑥ 전산 소모품, 사무용품
⑦ 인쇄비 지원 ⑧ 없음 ⑨ 기타()

II. 학술지 발행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6. 귀 연구소 발행 학술지에 논문투고시 회원자격이 필요합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7. 학술지 논문투고 자격 유지를 위한 회원의 연회비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없다 ② 5만원 이하 ③ 6만원~10만원 ④ 11만원~15만원
⑤ 15만원 초과

8. 학술지 논문투고시 투고자가 부담하는 심사비가 있으면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없다 ② 3만원 이하 ③ 4만원~6만원 ④ 7만원~10만원
⑤ 10만원 초과

9. 논문게재 확정시 정회원(정년트랙 교원)이 납부하는 게재료(평균치)가 있으면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없다 ② 10만원 이하 ③ 11만원~20만원 ④ 21만원~30만원
⑤ 30만원 초과

10. 논문게재 확정시 준회원(비정년트랙 교원)이 납부하는 게재료(평균치)가 있으면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없다 ② 5만원 이하 ③ 6만원~10만원 ④ 11만원~15만원
⑤ 15만원 초과

11. 논문게재 확정시 특별히 연구비(예, 연구재단) 수혜로 진행한 논문일 경우 납부하는 게재료가 있으면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없다 ② 30만원 이하 ③ 31만원~50만원 ④ 51만원~70만원
⑤ 70만원 초과

Ⅲ. 학술지의 원문서비스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12. 귀 연구소 학술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문서비스 방법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모두 표시)

- ① 홈페이지 또는 귀 연구소 학술지만을 위한 홈페이지
- ② 소속대학의 도서관, 대학 내 학술정보 사이트
- ③ 비영리 기관(KISTI, KERIS 등)
- ④ 한국연구재단(KCI)
- ⑤ 유료DB업체(KISS, DBpia 등)
- ⑥ 기타 (_____)

13. 귀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원문서비스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학술지 수록 논문의 노출과 인용확대 ②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 ③ 저작권료를 통한 수익 창출
- ④ 대부분의 연구소에서 하기 때문
- ⑤ 기타 (_____)

14. 위 12번 질문에서 2가지 이상 표시한 경우 가장 적합한 이유를 선택해 주십시오.(2가지 이상 표시한 경우만)

- ① 각 채널마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
- ② 학술지 수록 논문의 노출과 인용확대
- ③ 학술지 출판비용 확보를 위한 이익창출
- ④ 기타 (_____)

15. 12번 질문에서 “①홈페이지 또는 귀 연구소 학술지만을 위한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서비스 방법을 표시한 경우 가장 적합한 이유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술저작물의 유료화 반대

- ② 연구소 의견반영 및 내용수정이 쉬움
- ③ 논문투고에서 이용서비스까지의 일원화를 위해
- ④ 다양한 채널로 논문서비스를 하기위해
- ⑤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를 위해
- ⑥기타 (_____)

16. 위 질문에서 귀 연구소가 시행하고 있는 “①홈페이지 또는 귀 연구소 학술지만을 위한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서비스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타 학술지 통합검색 부재
- ② 낮은 인지도
- ③ 사이트 불안정 및 관리 불편
- ④ 불편한 점이 없음
- ⑤ 기타 (_____)

17. 12번 질문에서 “②소속대학의 도서관, 대학 내 학술정보 사이트를 통한 원문서비스방법을 표시한 경우 가장 적합한 이유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대학 내 다양한 학술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 ② 논문DB 구축 및 관리 비용 절감
- ③ 다양한 채널로 논문서비스를 하기위해
- ④ 대학 내 이용자가 많아서
- ⑤ 기타 (_____)

18. 위 질문에서 귀 연구소가 시행하고 있는 “②소속대학의 도서관, 대학 내 학술정보 사이트”를 통한 방법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타 학술지 통합검색 부재
- ② 낮은 인지도
- ③ 연구소 의견 반영이 어려움

- ④ 불편한 점이 없음
- ⑤ 기타 (_____)

19. 12번 질문에서 “③비영리 기관(KISTI, KERIS 등)”을 통한 원문서비스를 표시한 경우 가장 적합한 이유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술저작물의 유료화 반대
- ② 유관 전공분야 논문이 많아서
- ③ 다양한 채널로 논문서비스를 하기 위해
- ④ 인지도가 높은 기관이므로
- ⑤ 기타 (_____)

20. 위 질문에서 귀 연구소가 시행하고 있는 “③비영리 기관(KISTI, KERIS 등)”을 통한 방법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부 학문분야에 편중
- ② 속도 저하, 이용불편
- ③ 연구소 의견 반영이 어려움
- ④ 불편한 점이 없음
- ⑤ 기타 (_____)

21. 12번 질문에서 “⑤유료DB업체(KISS, DBpia 등)”를 통한 원문서비스를 표시한 경우 가장 적합한 이유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술지 수록 논문의 노출과 인용확대
- ② 검색의 편의와 시스템 신뢰성이 높음
- ③ 발생수익이 연구소 재정에 기여
- ④ 유관 전공분야 논문이 많음
- ⑤ 기타 (_____)

22. 위 질문에서 귀 연구소가 시행하고 있는 “⑤유료DB업체(KISS, DBpia 등)”를 통한 원문서비스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발생하는 저작권 수입이 너무 적음

- ② 업체와 연구소 수익비율의 불합리
- ③ 저작권 정산의 신뢰성 부족
- ④ 불편한 점이 없다
- ⑤ 기타 (_____)

23. 귀 연구소 학술지가 유료DB업체(KISS, DBpia 등)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연간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없음
- ② 100만원 미만
- ③ 100만원~500만원 미만
- ④ 500만원~1,000만원 미만
- ⑤ 1,000만원 이상

24. 유료DB업체(KISS, DBpia 등)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귀 연구소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전혀 없다. ② 도움이 안된다. ③ 도움이 된다.
- ④ 상당히 도움이 된다.

25. 귀하는 개인 연구자로서 원문검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유관 전공분야 논문이 많은지 ② 인지도가 높은 DB인지
- ③ 검색 속도와 이용의 편의성 ④ 무료서비스 유무
- ⑤ 기타 (_____)

IV. 귀 연구소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관련 질문 사항입니다.

26. 귀 연구소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내용을 어느 곳에 밝히고 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 ① 학술지에만 표시되어있다.

- ② 홈페이지에만 공개되어있다.
- ③ 학술지와 홈페이지 모두 공개되어있다.
- ④ 공개되어 있지 않다
- ⑤ 저작권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
- ⑥ 모르겠다

27. 귀 연구소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은 누가 소유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저자 ② 연구소 ③저자와 연구소 공동
- ④ 기타 (_____)

28. 위 27번 질문에서 ②또는 ③을 표시한 경우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양도 또는 기관 이용허락 동의서 사용 유무를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있다 ② 없다

29. 귀하는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이 누구의 소유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저자 ② 연구소 ③저자와 연구소 공동 ④ 잘 모르겠다.
- ⑤ 기타 (_____)

30. 위의 답변에서 저작권 소유 주체를 선택한 이유를 간략히 적어 주십시오.
(_____)

V. 오픈엑세스 관련 질문 사항입니다.

오픈엑세스(Open Accesss)란, 학술논문을 전세계 이용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어떠한 허락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무료로 이용하도록 출판하는 것임)을 말한다.

31. 귀하는 위에 언급된 오픈엑세스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안다 ④ 매우 잘 안다

32. 연구자(이용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오픈액세스 방식으로 학술지를 출판한다면 만족하시겠습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33. 귀 연구소는 학술지를 오픈액세스 방식으로 출판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 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34. 위 질문에서 귀 연구소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오픈액세스 시행을 논의한 적이 있다면(33번 ③,④) 어떠한 점을 가장 우려하셨습니까?

- ① 상업DB업체에서 받는 수익 감소 ② 회원반대 ③ 국내 사례가 적음
④ 기타(_____)

35. 33번에서 ①, ②을 선택하셨다면 오픈액세스 방식으로 학술지를 출판할 때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상용DB 업체로부터 받는 저작권 수입이 없어짐
② 어떤 방식으로 원문서비스 해야 할지 고민됨
③ 연구자 및 편집위원의 인식 부족으로 시행반대
④ 기타 (_____)

36. 만일 귀 연구소 학술지를 오픈액세스 방식으로 발행한다면 원문서비스 채널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기관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귀 연구소 홈페이지
② 대학의 도서관
③ 대학 내 학술연구 사이트
④ 비영리기관(KISTI, KERIS..)
⑤ 한국연구재단(KCI)
⑥ 기타 (_____)

VI. 통계분석을 위한 질문 사항입니다.

37. 귀 대학의 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국립대 ② 공립대 ③ 사립대 ④ 기타()

38. 귀 연구소 학술지 규정에 규정된 편집위원장의 임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기간 없음

39. 귀 연구소 학술지와 관련하여 귀하의 역할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편집위원(장) ② 편집이사 ③ 편집간사 ④ 기타()

40. 귀하는 연구소 학술지와 관련하여 현재 역할을 몇 년간 맡고 계십니까?

- ① 1년 미만 ② 1~2년미만 ③ 2~3년미만 ④ 3~4년미만
⑤ 4년 이상

41. 귀하가 전공하는 학문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인문 ②사회 ③예술체육 ④복합학
⑤자연 ⑥공학 ⑦의약학 ⑧농수해양

- 바쁘신 중에도 설문제 적극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ABSTRACT

A study on the on the expansion of the open access to
Articles published by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s: Focused on
the journals listed (candidate)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Son, Cheon-Ik

Major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Researchers and academic journal issuers want the theses contained in the published academic journals to be exposed more and cited by many people. In addition, they are doing Document Delivery Service through a number of channels to increase the citations. However, such current method of Document Delivery Service seems not to meet the expansion of citation of the listed pap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activate the open access to institute listed journals by investigating the status of Document Delivery Services and copyright status of academic journals listed (candidates) on domestic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s (hereafter, institute listed journal). To this aim, Document Delivery Service status and copyright status were reviewed after connecting to institute websites for

296 institute listed journals on the Korea Citation Index (KCI) o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cademic journals. In addition, a survey was made for the editors involved in the publication of institute listed journal for the method of the publishing and Document Delivery Service of each academic journal, and the details regarding the awareness of copyright. Questionnaire recovery was 31.1% (92 subjects).

Specifically, first, research was conducted for the status of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 through the website of the institutes, through commercial DB, and through KCI and non-profit organizations. Second, research was made for the copyright-related regulations and the copyright ownership entity. Third, the survey was carried out for the editors of institute listed journals about the operation of the institutes and publication of academic journals, methods of Document Delivery Services and the reason of selection, and the copyright and open access recognition. Questionnaire recovery was 31.1% (92 subjects).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selection criteria of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 of institute listed journals is the level of conformity with the increase of exposures and citations of the listed papers and the evaluation of the academic journals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o this aim, Document Delivery Service was being performed through websites, commercial DB, and non-profit organizations. Second, the author and the institutes want co-ownership of the copyright, but most of the cases actually, the institutes own the copyright for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 and the management of the paper. Third,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s have better environments when publishing academic journals than academic societies and other academic institutions, owing to the support of the university. Fourth,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academic sectors in the selection criteria of Document Delivery Service, knowledge level and preferences related to the

open access, and copyright ownership and preferences.

The followings have been proposed for the increase of use and citation of papers on the institute listed journal and the improvement plans of Document Delivery Service to evaluat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cademic journals.

First, the expansion of Document Delivery Service channels through KCI, activation of self-archiving, and free commercial DB, and the expansion of exposure and citation of paper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flexibility in the channel selection should be pursued. Second, copyright ownership entities should be determined taking the financial circumstances of each institute and university support into account, and the copyright provisions should be organized and copyright authority should be specifically displayed. Thir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should promote accurate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open access to the editors and researchers of institute listed journals.

【Keywords】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document delivery service, copyright, open access, academic journals